국민이 행복한 나무심기

4월 5일 제68회 식목일

지역별 나무심기 좋은 시기

지역	시기
난대지역 (제주·남해안)	2월하순~3월하순
온대남부 (전남·경남)	3월초순~4월초순
온대중부 (충청·전북·경북)	3월중순~4월중순
온대북부 (경기·강원)	3월하순~4월하순

Weekly 공감

2013.03.11 NO.199
korea.kr/gonggam

기획특집

‘부드러운 카리스마’ 여성 리더십 P13~26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② 맞춤형 고용·복지 P28~35

제주 곶자왈 동백동산을 걷다 P56~59

〈위클리 공감〉 공식 블로그 오픈 기념 이벤트

koreablog.korea.kr

2013명 시민이 모이면 새로운 희망이 커집니다

평소 돕고 싶은 이웃, 기부하고 싶은 단체, 소중한 가족을 위해 희망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이벤트 기간 내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팬이 2013명을 넘기면,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기부금' 2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위클리 공감〉 블로그(koreablog.korea.kr) 이메일로 구독하고 이벤트 소개글에 희망사연 남기기

둘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www.facebook.com/wegonggam) 'Like'를 누르고 희망 사연 남기기

- 희망기부금 (1명) : 200만원
- 공감상 (5명) : 10만원 문화상품권
- 정책상 (5명) : 이코노미스트 1년 정기구독권
- 행복상 (20명) : 3만원 상당 선물
- 스마트상 (40명) : 1만원 기프트콘

희망 사연은 2013년에 희망기부금을 보내고 싶은 곳을 추천하고 이유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모두 참여하시면 당첨 확률이 두 배가 됩니다.

- 이웃 독거노인 돕기, 봉사단체 기부하기, 불우가정 수술비 돕기 등

· 이벤트 참여기간 : 3월 12일~3월 25일 · 당첨자 발표 : 3월 말 (블로그, 페이스북에 공지)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여성은 융합에 강하다

최영미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인류 문화와 문명은 여성이 이끌어왔다. 여성은 시대적 환경과 요구에 적응하며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봉건사회와 근대를 거치며 여성의 역할은 축소되고 왜곡되어 온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서 여성의 역할과 능력을 강조하는 말이 자주 들린다. 긍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지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성에 대해 무언가 남성성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요소로 바라본다. 여성성을 모성·자애·포용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하며, 여성이 지닌 풍부한 수용력과 진화를 추구하는 유전자적 형질(DNA)을 구체화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여성이 지닌 고유한 능력과 그 활용법을 최근 강조되는 '창조경제'를 들어 이야기하고 싶다. 창조경제는 기존 추격모방형 경제에서 선도창의형 경제로 진화함을 의미한다.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해 산업 간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운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라는 말이 나온 배경은 사회문화의 성숙과 과학기술 발전의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기술적 수준만 높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문화적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기술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야 구매자가 매료되는 제품이 나온다. 공학과 인문학·사회과학이 만나야 예술적 상상력과 현실성이 융합한 수준 높은 공학기술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의 뇌는 공감과 의사소통에 더 적합하다. 특히 관계중심적 사고에 강한 특징이 있다. 이런 장점은 융합기술 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창조경제시대에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그래서 진화의 DNA, 융합의 DNA를 가진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의 뇌는 공감과 의사소통에 더 적합하다. 특히 관계중심적 사고에 강한 특징이 있다. 여성은 멀티 태스킹 능력, 타문화 적응력, 감성적 표현력과 수용력이 탁월하다. 이런 장점은 융합기술 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성적 감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상은 남성중심적 세계에 대한 조정과 재구성을 의미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활동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의되고 영역과 범주가 정해져야 한다. 먼저 남성 편향 정책을 파악한 다음,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고용과 승진 할당제 확대 적용이나, 출산·육아휴직 때 대체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좋은 예다.

그러나 여성 공학기술인은 아직 소수다. 차세대 여성 공학기술인이 될 공과대학 학·석·박사과정의 여학생 비율도 12~17퍼센트 수준이다. 창조경제를 미래세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에 각별히 힘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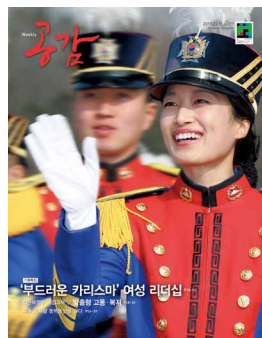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확대가 필요하다. 수용력, 아이디어, 문화적 감성 등에 기반을 둔 융합의 DNA를 지닌 여성 과학도들은 국가 미래의 희망이자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Contents

기획특집

나와 너를 바꾸는 부드러운 힘

여성 리더십이 나라 안팎에서 꽃피고 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 변화하는 가치관에 따라 보살핌과 포용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적 리더십이 각광받는다. 어머니의 힘, 누나의 희생은 우리의 근대화·산업화를 떠받치는 저력이었다. 그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화합의 여성 리더십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휘되고 있다.

표지 이야기 | 소통과 상생의 시대다. 때맞춰 섬세하면서도 강인하고, 책임감까지 갖춘 여성 리더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다. 올해 69기를 배출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가운데서도 수석 졸업생은 여성이었다. 수많은 남자 동료들을 제치고 수석을 차지한 양주희 생도(당시)가 졸업식장에서 활짝 웃고 있다. 표지사진·연합

중점기획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❷

맞춤형 고용·복지

공감기획 | 내가 꿈꾸는 나라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03.1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19일(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위클리 공감〉 이 기사!

공감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이 부르는 2013 희망의 노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문화·과학기술 융합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쉽게 풀어 이해 잘 돼

198호부터 시작한 중점기획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기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많이 보고 들었지만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책뉴스임에도 정치적 분석이 섞여 있어 정보를 얻기보다 정치적 색깔로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 〈위클리 공감〉에서 이런 정책을 쉽게 설명해줘 이해하기 수월했습니다.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어 유익하게 느껴집니다. 직장인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정책 기사를 일일이 챙겨 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시리즈 다음 호 기사도 기대해 봅니다.

이런 기사 다뤄주세요 가볍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98호에서는 박찬욱 감독과 그의 최신작 〈스토커〉 기사, 소녀가수 박지민양 인터뷰 기사가 실렸더군요. 이런 지면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부 관련 인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독자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다양한 인물 관련 기사를 〈위클리 공감〉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지훈 (회사원·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지난호를 읽고

하루빨리 빚의 그늘 벗어나길 소망

기획특집 '2013 희망의 노래'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뒤 부가 일부 계층에 쏠리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걱정하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또 가정도, 국가도 빚이 많다고 합니다. 가정에 빚이 많으면 가족이 고통스럽고, 국가채무가 많으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갓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좋은 경제 정책을 펴 가정이든 정부든 하루빨리 빚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양순 (주부·광주 남구 서문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IT산업 되살리길

196호 기획특집 과학기술강국의 길 중 '한국의 IT산업' 기사를 보고 현재 우리나라 정보기술(IT)산업의 현실을 어느 정도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경쟁지수가 최근 많이 떨어졌다더군요. 그런 점에서 새로 만들어질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 IT시장을 견인하는 대한민국 IT기업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조한석 (회사원·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국민권익의 날' 의미 새로 알게 돼

198호 정책뉴스를 통해 '국민권익의 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2월 27일이 국민권익의 날로 제정됐다는 기사를 보고 '국민권익의 날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고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한 날짜가 조선왕조 3대 임금인 태종이 신문고 설치 교서를 내린 날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지 상세히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임주한 (학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팝 스타' 박지민 양 좋은 성과 얻기를

평소 〈위클리 공감〉을 애독합니다. 198호 도로명주소 홍보대사 박지민양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방송을 보지 않아 그간 'K-팝 스타' 오디션 우승자를 다른 가수로 알고 있었는데 박지민 양이 우승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발랄한 상상력과 두려움 없는 도전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박지민 양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조현정 (회사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제3회 창조관광사업(관광벤처)을 공모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분야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을 공모합니다. 예비창업자·기존사업자 외에 창의적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면 모두 응모 가능합니다.

공모대상 개인 또는 팀(팀 인원 제한 없음)
– 아이디어 : 관광분야의 창의적 창업 아이디어
– A그룹 : 관광분야 관련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
– B그룹 : 관광 관련 창의적 창업 아이템을 신규사업으로 계획 중인 기존사업자

공모기간 4월 19일까지

응모방법 온라인 접수(www.venture-visitkorea.com) 또는 우편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2-22 신보빌딩 5층 공모전 운영사무국(우 : 121-840)

시상내역
▶아이디어 부문 (800만원) : 상금으로 지급
대상 1명(상금 300만원), 최우수 1명(상금 200만원), 우수 1명(상금 100만원), 장려 2명(상금 50만원), 입선 5명(상금 20만원)
▶ A·B그룹 (4억원) : 향후 사업화자금으로 활용(단, 획득한 시상금의 10%는 상금으로 현금 지급) 대상 1명,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5명, 입선 30명(시상금은 최종심사 사업 대상 투자전문가가 베팅 방식으로 각 사업의 시상금 결정)

문의 www.venture-visitkorea.com, 02-322-7005

제4회 '우리 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법무부와 국회(김회선 의원실), 〈매일경제〉가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우리 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가정·학교·직장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 실천 원칙을 담은 헌법을 만들어 응모하면 됩니다.

공모대상 국민 누구나

응모주제 가정헌법 만들기, 학급헌법 만들기, 직장헌법 만들기
▶ 가정헌법 만들기 부문 : 가족이 모여 대화를 통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나 원칙
▶ 학급헌법 만들기 부문 : 같은 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서로 꼭 지켜야 할 약속
▶ 직장헌법 만들기 부문 : 즐겁고 보람된 직장생활을 위해 서로 지켜야 할 규칙

제출내용 가정·학급·직장헌법 내용, 제작 과정, 가족·학급·직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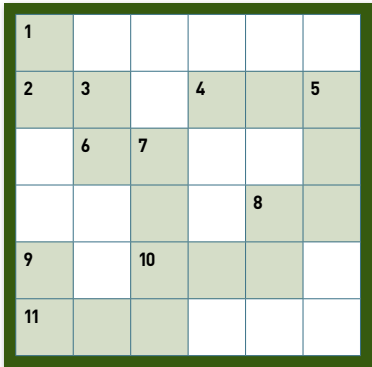
공모기간 4월 28일까지

응모방법 온라인 접수(cyberland.lawnorder.go.kr)

시상내역
▶ 대상 : 법무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가정·학급·직장부문 중 1명)
▶ 최우수상 : 국회법제사법위원장상 (상금 100만원, 가정부문 2명), 매일경제 회장상 (상금 100만원, 학급부문 1명, 직장부문 1명)
▶ 우수상 : 농협중앙회장상 (상금 50만원, 가정부문 3명), 손해보험협회장상 (상금 50만원, 학급부문 2명, 직장부문 2명)
▶ 장려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상 (상금 30만원, 가정부문 5명, 학급부문 4명, 직장부문 4명)
▶ 특별상 : 국회 김회선 의원상 (상금 50만원, 가정부문 1명, 학급부문 1명, 직장부문 1명)

문의 02-2110-3314, lawnorder@korea.kr

낱말맞추기

1					
2	3		4		5
	6	7			
				8	
9		10			
11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 맞추기 199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3월 21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서기 698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 등을 이끌고 세운 나라. 해동성국.
4. 주로 '신입생'을 이르는, 새로 만들어 쓰는 말이죠.
6. 형제자매의 자녀.
8. 새의 활짝 편 두 날개. '○○를 펴다.'
10. 자기 자신. 자신의 힘으로. "○○○ 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미루지 마라."
11. 예전에는 구황식품이었으나 지금은 좋은 건강식품으로 꼽히죠.

세 로
1. 목적지를 향해 나아감. 어떤 일을 시작함.
3. 바다에서 나는 식물. ○○류.
5. 피곤할 때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것.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가 ○○○를 펴며 봄을 맞는다."
7. 대중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 (좋은 의미의) 권위.
8.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 나갈 수 있는 길. '○○를 찾다.'
9.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견디며 몸과 마음을 다해 무척 애를 씀.

〈위클리 공감〉 196호(2월 11일&18일자) '공감 낱말 맞추기' 정답
가로 1 다문화 3 발행 4 합반 7 학수고대 8 끈기
세로 1 다행 2 화합 3 발사체 5 반창고 6 과학기술

〈위클리 공감〉 196호 '공감 낱말 맞추기' 당첨자
김상철·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최현지·부산 사하구 다대낙조2길
정경희·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송동목·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김효정·제주도 제주시 우정로 11길

※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200여 기업 사업 성공 직접 돕는다

올해 기업당 2,000만원, 총 40억원 투입… 소기업·소상공인에겐 4,200억 특별대출도 지원

중소기업청이 1인창조기업을 발굴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해 우수 아이디어와 제품의 판로를 확보해 주고 홍보도 돕는다. 총 40억원을 들여 200여 1인창조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를 특별대출한다.

중소기업청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의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우수제품관에 방문객들이 몰렸다.

"중소기업청의 도움으로 영문 브로셔와 제품 패키지(포장디자인)를 지원받았습니다. 해외 로드쇼와 박람회에 참가해 큰 성과를 얻었어요. 사업을 꾸려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3차원 인체 스캔 기술을 이용해 승마제품을 개발하는 POIL 사의 조하나(29) 대표는 요즘 신바람이 난다. 1년 새 매출액이 4배나 뛰었기 때문이다. 2011년 1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4억원으로 늘었다. 조 대표에게서는 불황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 2010년 '나홀로 창업'을 할 때만 해도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조 대표는 성공 요인으로 지난해 출원한 특허와 국내 유일의 승마복 제조 디자인 업체라는 점을 꼽는다. 중기청 지식사업화 지원사업(1인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전신)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 나홀로 창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라는 큰 지원군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2월 25일 1인창조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1인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제조업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중기청은 보유한 아이디어나 지식을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1인창조기업을 위해 '마케팅 지원사업'을 펼치고 올해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도 30억원에서 10억원 늘어난 예산이다. 마케팅 지원사업은 아이디어가 참신하거나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200여 1인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제품 디자인, 브랜드 개발, 오픈마켓 등록, SNS 커머스 분야 등 구체적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까지, 그 이상일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사업화 지원은 최대 500만원 한도

1인창조기업 지원은 총 4개 분야로 나뉜다. ▶사업화 디자인 개발 ▶온라인 사업화 지원 ▶오프라인 사업화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이다. 우선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화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시각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mock-up(실물 모형 제작), 브랜드 이미지 통합(BI)과 기업 이미지 통합(CI) 개발을 돕는다.

온라인 사업화 지원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홈페이지 제작 지원, 검색엔진 마케팅,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지원 및 대행, SNS 커머스 구축 및 상품 등록, 홍보 앱 개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오프라인 사업화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 전시회 참가,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홍보영상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 다양한 측면을 지원한다.

나홀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지원한다. 최대 500만원 한도로 외국어 번역, 국외 전시회 참가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1인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창업넷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된 예비창업자는 지원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김현희 주무관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창조기업의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G

글·김지연 기자

창업넷 www.changupnet.go.kr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54 **창업진흥원** 042-480-4384

1인창조기업 지원분야 및 규모

성장단계	분야	지원내용	보조금 한도
공통	On-line 사업화 지원	홈페이지(웹사이트) 제작 지원	500만원
		검색엔진 마케팅	500만원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지원 및 대행	200만원
		SNS 커머스 구축 및 상품 등록 지원	200만원
		홍보 앱 개발	500만원
	Off-line 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조사(컨설팅)	4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	200만원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500만원
		홍보영상 제작	1,000만원
		지식재산권 등 출원(PCT 포함)	300만원
창업기	사업화 디자인 개발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500만원
		시각디자인 개발(포장 등)	500만원
성장기	사업화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mock-up 등	2,000만원
		브랜드(CI, BI) 개발 지원	2,000만원
	Off-line 사업화 지원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1,000만원
	글로벌 시장 진출	외국어 번역	300만원
		국외 전시회 참가	500만원

자료·중소기업은행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4,200억원 특별 대출 지원

중소기업청이 2월 25일부터 창업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서다. 이번 대출은 금융기관 특별출연협약 보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350억원을 재단에 출연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이다.

5,000만원 이내 대출은 대출사고 때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전액보증' 방식으로 지원한다. 5,000만원 초과 보증에 대해서는 대출사고 때 은행이 10퍼센트를 책임지는 '90퍼센트 부분보증' 방식으로 운용한다.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여 주는 대신 대출은 더욱 쉽도록 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리스크 부담이 준 만큼 창업기업에 보증료율을 0.2퍼센트 감면해 주고, 5퍼센트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은 전국 각 지역신보나 국민은행 지점에서만 받는다.

중기청 기업금융과 윤영섭 사무관은 "이번 협약이 민간 자율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초등학교에서 김보라 국악예술강사가 학생들과 장구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도 예술가 선생님 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전국 7,254개 학교에 8개 분야 4,485명 배치

초·중·고교 예술수업을 책임지는 예술강사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창의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는 예술수업이 한국 교육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공예·디자인·사진 등 총 8개 분야 예술교육이 사교육에 지친 학생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만화를 그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강의하던 호중훈(43) 강사는 경기지역 한 중학교에 출강 중이다. 토요일 중학교 1학년 동아리 시간을 담당한다. 때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선택교과수업을 맡기도 한다. 호 강사는 예술강사를 하면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보람을 느낀다.

"진로를 정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흔해요. 학교마다 몇몇 학생은 애니메이션 수업을 듣고 자신의 진로를 바꾸기도 하지요." 이전에는 접할 수 없던 예술분야를 접하고 나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한 것이다. 호 강사는 "어린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으로서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보람 때문에 호 강사는 6년째 예술강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체 학교의 63%, 학생 210만 명 혜택

한 번은 다리를 다쳐 수업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의 학생이 기어이 목발을 짚고 등교했더라고 한다. 호 강사의 마지막 예술수업을 듣기 위해서였다. 학생은 자신이 그린 만화를 호 강사에게 선물했다. 호 강사는 "공모전에서 떨어졌는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 만화를 그리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찡한 감동을 받았다"면서 "아이들에게 만화를 가르쳐준다기보다 아이들로부터 감동을 받고 예술적 감성을 배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각급 학교에 호 강사 같은 예술강사가 늘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지난해 12월 선발한 예술강사 4,485명을 지난 2월 전국 7,254개 학교에 배치 완료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예술강사는 각 학교에 배치돼 기본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과정이나 토요일 동아리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예술가다.

예술강사제도는 문화예술을 통한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00년부터 시작했다.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공예·디자인·사진 등 8개 분야 가운데 각 학교에서 선택한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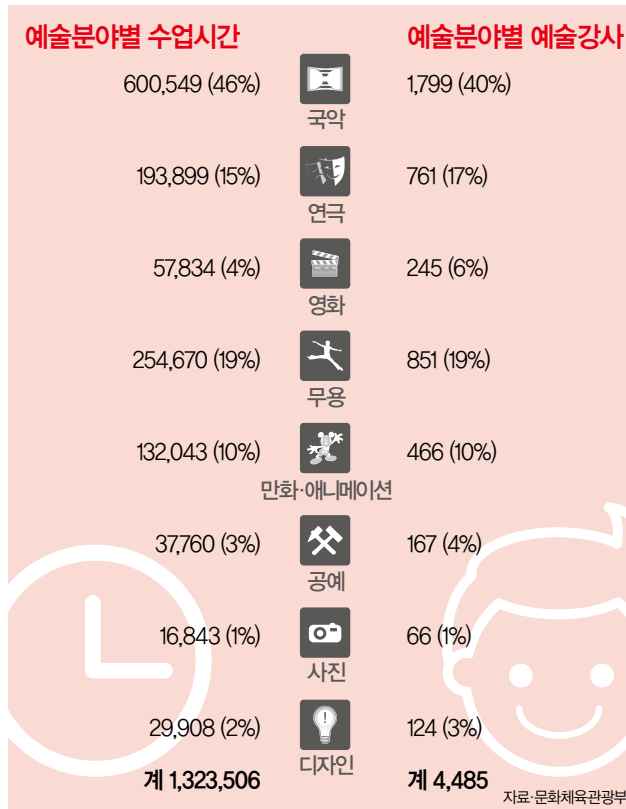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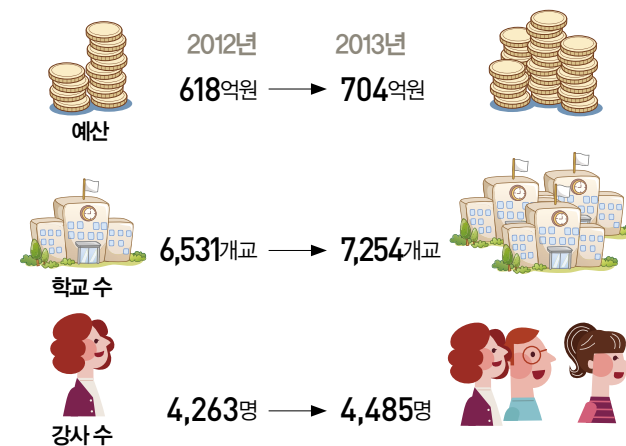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해 750명의 국악강사를 533개 학교에 파견한 것으로 시작했다. 2002년 연극, 2004년 영화, 2005년 무용·만화(애니메이션), 2010년 디자인·사진·공예 등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맞춰 지원분야를 계속 확대해왔다.

매년 지속적으로 강사가 늘어나고 예산도 커져 올해는 총 704억원 규모로 커졌다. 올해 전체 초·중·고교(1만1,599개교)의 약 63퍼센트에 예술강사가 배치돼 총 210만 명에 이르는 학생이 예술강사의 수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강사 수업시(간)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학기 시작 전 담당 교사와 예술강사가 수업시수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한다. 보통 예술강사 1인당 한 주에 5~10시간 정도를 담당한다고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각 학교에 배치할 예술강사에 대한 140시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강사를 포함해 1,605명이 학교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학생들과 어울려 예술 즐기는 자세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각급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력 향상,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호중훈 강사는 "예술강사는 예술을 다루면서 교육을 맡는 사람이어서 예술 작업자로서의 경험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교육적으로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이 모두 필요하다. 자신이 만든 예술적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지 고민하다 보면 예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다 확대된 예술강사 규모

	2012년	2013년
예산	618억원	704억원
학교 수	6,531개교	7,254개교
강사 수	4,263명	4,485명

호 강사는 올해 새로 예술강사를 시작하는 예술가들에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야 소통이 가능하고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사교육 틈바구니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의 현실에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뚫어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글·박상주 기자

세계 8위 무역대국

대한민국이 세계 8위 무역대국으로 떠올랐다. 지식경제부는 3월 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세계무역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2012년 1조675억 달러로 세계 8강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9년 처음으로 세계 무역량 10위권에 오른 뒤 꾸준히 순위가 오르는 추세다. 세계 무역시장에서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탈리아·홍콩을 제치고 영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대한민국 무역규모 순위 추이

연도	순위
2000년	13위
2005년	12위
2009년	10위
2010년	9위
2011년	9위
2012년	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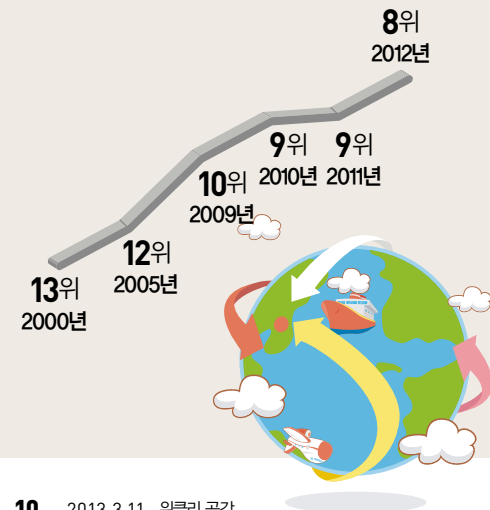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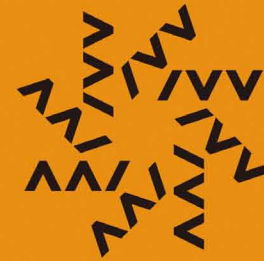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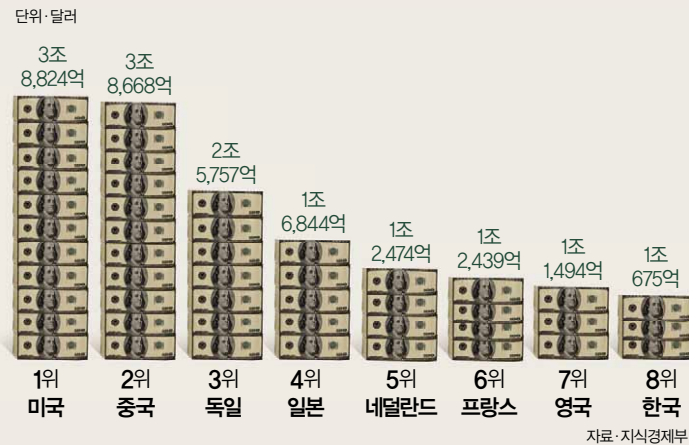
2012년 국가별 무역규모 순위

단위 · 달러

순위	국가	무역규모
1위	미국	3조 8,824억
2위	중국	3조 8,668억
3위	독일	2조 5,757억
4위	일본	1조 6,844억
5위	네덜란드	1조 2,474억
6위	프랑스	1조 2,439억
7위	영국	1조 1,494억
8위	한국	1조 675억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www.kawf.kr
02 3668 0200

Art First, Life Must
예술인이 예술로 먹고사는 세상

예술인의 배움이 일자리가 되고 창작준비기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3년 '취업지원 교육사업'과 '창작지원 복지사업'을 시작합니다.

● "예술로 배우고 일하기 프로젝트" – 취업지원 교육사업

- 청년예술인을 전문직업인으로 〈1인 창조기획자 양성〉
- 중견예술인을 위한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 〈직업역량 강화〉
- 예술매개 〈사회갈등조정자 양성〉
- 사회이슈에 긍정적 대안제시 〈장애예술인 희망세우기〉
- 스스로 배움을 기획하는 〈수요자맞춤형 교육〉

- 일정 : 위탁기관 공모 3월
교육훈련대상자 선정 4월
강좌시작 4월 중
- 지원방법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승인 완료 후
지원신청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등 서류제출
(이메일 접수 : artnjob@kawf.kr 또는 우편 접수)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 – 창작지원 복지사업

- 안심하고 창작을 준비 할 수 있는 〈창작준비금지원〉
- 새로운 창작을 위한 재충전 기회 〈창작전환기지원〉
- 예술이 장애를 넘어서도록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지원〉

- 일정 : 접수기간 3월 19일(화) ~ 3월 28일(목)
결과공고 4월 말
- 지원방법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승인 완료 후
지원신청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등 서류제출
(이메일 접수 : artist@kawf.kr 또는 우편 접수)

2013년 복지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awf.kr)를 참고하세요.
문의 : 02 3668 0200

Winslow Homer, A Temperance Meeting, 1874
Oil on canvas, Philadelphia Museum of Art
purchased with the John Howard McFadden, Jr., Fund, 1956, 1956-118-1

미국미술 300년

ART ACROSS AMERICA

2013.02.05.-05.19.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주 최 국립중앙박물관 KBS DMA
주 관 KBS미디어 ena
특별후원 TERRA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미국대사관 국립중앙박물관회
미디어후원 스포츠서울 kt skylife NAVER
협 찬 KOREAN AIR ELLUI
전시문의 1661-2440 www.artacrossamerica2013.com
예 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LACMA MFA H 국립중앙박물관 PHILADELPHIA MUSEUM OF ART TERRA

ART ACROSS AMERICA WAS ORGANIZED BY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AND THE TERRA FOUNDATION FOR AMERICAN ART.
THIS EXHIBITION IS MADE POSSIBLE BY THE TERRA FOUNDATION FOR AMERICAN ART, AND IS SUPPORTED BY AN INDEMNITY FROM THE FEDERAL COUNCIL ON THE ARTS AND HUMANITIES.

기획특집

나와 너를 바꾸는 부드러운 힘

여성 리더십이 나라 안팎에서 꽃피고 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 변화하는 가치관에 따라 보살핌과 포용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적 리더십이 각광받는다. 어머니의 힘, 누나의 희생은 우리의 근대화·산업화를 떠받치는 저력이었다. 그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화합의 여성 리더십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휘되고 있다.

일러스트·이우정

섬세·강인함·책임감으로 "女봐라"

남성과 다른 포용과 배려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견인

'여성시대'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만이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글로벌 트렌드다. 교육기회와 사회 진출 확대, 그리고 양성평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글로벌 여성시대는 기업 임원, 정치인과 같이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한 영역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성 리더십은 남성 리더십과 다른 포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바야흐로 여성시대인가?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해 사상 처음 20대 남성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3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퍼센트를 기록,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2.6퍼센트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1.8퍼센트포인트 늘어난 반면 20대 남성은 같은 기간 8.3퍼센트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구직연령인 20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보다 활발한 것은 여성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데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진학률에서도 2009년 여성이 82.4퍼센트로 남성(81.6퍼센트)을 추월한 뒤 여성의 남성 추월 현상이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서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대학진학률(2008년)은 여성 63퍼센트, 남성 50퍼센트 수준이다.

중앙포토

여성 리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리더십 교육도 활발하다. 지난해 7월 성신여대가 개최한 '성신 스마트 리더스 캠프'에 참가한 여고생과 여대생들이 병영체험을 하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신장되는 가운데 올 들어 단행한 각 기업의 인사에서 여성 임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임원이란 단순한 경제활동 이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삼성그룹은 2013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총 12명의 여성 임원 승진자를 배출하는 '사상 최대' 여성 인력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도 올 초 3명의 여성 임원 승진인사를 냈다. 이것도 사상 처음이다. LG그룹에서는 여성 임원 4명이 새로 나왔다. 코오롱그룹에서는 창사 이후 첫 여성 CEO가 탄생했다.

기업 임원, 정치인 등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은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다. 1979년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올랐던 마거릿 대처 시대만 해도 여성 정치지도자는 생소했다. 2005년 취임한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지난해 경제전문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남성을 포함해 꼽은 순위에서도 전체 4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2008년 13.7퍼센트에서 2012년 15.7퍼센트로, 지방의회에서는 2006년 14.5퍼센트에서 2010년 20.1퍼센트로 늘었다.

어머니처럼 포용하는 따뜻한 카리스마가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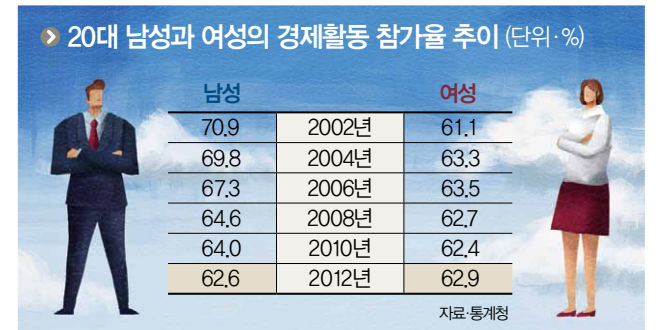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아 소장은 여성 리더십의 장점을 "어머니처럼 포용하고 안아줄 것 같은 따뜻한 카리스마"라고 말한다. 더구나 최고의 여성 리더들은 과거와 같이 남성 혹은 중성의 모습으로 남성과 경쟁하지 않는다. 여성스러움 자체를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잊지 않는다.

레슬리 바셋 주한 미 부대사는 지난 1월 8, 9일 이틀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7회 한미여성리더십세미나에서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은 적극적이고 진취적 사고방식과 더불어 따뜻함과 관대함도 갖고 있는 강한 여성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진출은 활발해졌지만, 임원 등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여전히 드물다. 2011년 100대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은 5퍼센트 수준, 여성 임원은 1.5퍼센트에 불과했다. 컨설팅업체 매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퍼센트로 아시아에서 가장 낮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남성		여성
70.9	2002년	61.1
69.8	2004년	63.3
67.3	2006년	63.5
64.6	2008년	62.7
64.0	2010년	62.4
62.6	2012년	62.9

자료·통계청

또한 정치분야와 공직 등으로도 여성 진출이 확대됐으나 중요한 의사결정분야에 위치한 여성 의원 및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4.1퍼센트,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8.4퍼센트에 머물렀다(2011년 기준). 2011년 초·중등 교원의 64.9퍼센트가 여성이지만 교장·교감 비율(교장 15퍼센트, 교감 28.6퍼센트)은 이에 현저히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2012년)의 '정치 권한' 부문에서는 86위, '관리자 비율'은 104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008년 62.1점 → 2009년 61.8점 → 2010년 62.6점이었다(100점이면 완전 평등). 2010년 국가성평등지수 가운데 '의사결정부문(100점 만점에 19.2점)이 가장 저조했다.

여성 진출 저조한 분야의 진출 확대 필요

성별 격차 해소는 삶의 질, 복지는 물론 경제 성과와 직결되는 문제로 평가받는다. WEF는 "성 균형이 경제성장과 안정의 근본 요소이며, 성 격차 해소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퍼센트, 유로존 GDP의 13퍼센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분야로의 진출 확대가 어느 때보다 기대를 모은다. 박근혜정부는 각종 돌봄 서비스 확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의 15퍼센트 확대(2017년까지)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연구위원은 "유리천장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여성 임원 수에 대한 목표치를 수립해 기업들에 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G

글·박경아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남성들만 뚫고 나아갈 길 아니다"

해경 함장, 여객기 기장, 육사 수석졸업 등 여성 3인의 편견 도전기

명령과 통제, 권위와 복종에 기반을 둔 '남성 리더 전성시대'는 갔다. 바야흐로 소통과 상생을 중시하는 '여성 리더 시대'다. '금녀(禁女)의 영역'이라는 표현도 옛말이 됐다. 이미 여성들은 육·해·공을 망라해 자신의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강인함, 그리고 책임감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세 여성의 분투기가 여기 있다.

'여성은 안 된다'는 말은 남성들의 편견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당찬 여성들이 있다. 첫 해경 함장 고유미(34) 경정, 이혜정(44) 여객기 기장, 올해 육사 수석졸업생 양주희(22) 소위 등 3인의 여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쟁의 위험도, 거친 파도도, 번개와 난기류도 남성들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바다·하늘·땅 어디에도 여자가 넘지 못할 벽은 없다는 충만한 도전의지가 이들의 공통점이다.

나아가 이들은 여성이 리더로서 남성보다 더 큰 강점이 있다고 여긴다. 따뜻한 인간애로 감싸줄 줄 아는 포근함과 업무 전반을 꼼꼼하게 챙기는 섬세함이 그것이다. 한번 맡은 임무는 끝까지 완수해 내는 책임감과 강인함도 남성들 못지않다고 이들은 자부한다. 이들은 "여성이라는 편견에 얽매이면 안 된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어떤 분야든 과감히 도전하라"고 한 목소리로 조언한다.

고유미 함장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첫 여성 함장 올라

독도를 경비하는 제민13호(1513함) 함장인 고유미 경정. 그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분야에 당당히 도전해 입지를 구축한 여성리더 중 한 명이다. 고 경정은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함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도 첫 경비함 근무 시절인 2003년에는 '여성은 안 된다'는 편견과 맞서 싸워야 했다. 당시만 해도 바다 사나이들 사이에서는 "여자가 무슨 배를 타느냐" "여자가 배를 타면 재수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때였다.

경비함을 집어삼킬 듯한 거친 파도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출렁이는 경비함 위에서 남의 눈을 피해 구토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항해·갑판·병기·구난업무 등 함정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두루 익히면서 동료들까지 챙겼다. 그러자 무뚝뚝하고 거친 바다 사나이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동료들의 신뢰를 쌓아가던 그는 해경이 된 지 11년 만인 지난 1월 28일 '최초의 여성 함장'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달게 됐다. 첫 여성 함장으로서 처녀출항하던 날 그는 "여성 함장도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와 해양영토주권을 완벽하게 수호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 경정은 현재 해양경찰관·전경 등 50명이 근무하는 1513함을 진두지휘하며 독도 수호와 조난선 구조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혜정 기장 승무원 출신으로 용기 내 기장 꿈 이뤄

이스타항공 이혜정 기장도 여성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비행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개척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의 여성 기장이자 국내 민간항공 최초의 여성 위촉심사관이 됐다. 위촉심사관이란 항공기 운항 승무원의 자격 부여와 자격 유지를 위한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같은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 1,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한 심사를 받은 후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위촉받는다.

이 기장은 객실에서 승객을 맞이하던 승무원 출신이다. 한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던 1996년 조종훈련생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했다. 이 기장은 "당시 절친한 동료 승무원이 조종사가 되기를 희망했는데 그 친구에게 자극을 받아 도전하게 됐다. '여자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어 용기를 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응시생 50여 명 중 유일하게 합격한 그는 미 텍사스에서 조종훈련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조종사의 길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조종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체력적 부담뿐 아니라 복잡한 기계 사용법도 그에게는 큰 장벽이었다. 그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 기계분야에서는 모르는 게 많았다. 무조건 외우고 나중에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다. 다행히 승무원 출신이다 보니 비행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고유미 함장

"여성 함장도 해양주권 완벽하게 수호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이혜정 기장

"여성들이여, 조종사라는 직업에 과감히 도전하라"

양주희 육군 소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남성 제치고 1등 할 수 있다"

그는 보잉 737과 747 조종면허를 갖고 있다. 1997년부터 3년여 간의 부기장을 거쳐 2010년 항공안전본부 기장 자격심사를 통과해 LCC 최초 여성 기장이 됐다. 그는 현재 8,000시간 무사고 운항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해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B737 항공기 위촉심사관이 됨으로써 조종 실력을 또 한번 공인받은 셈이 됐다.

그는 "조종사는 안전운항이 최고의 지상과제다. 부기장·승무원들과 조화를 이뤄 고객을 편안히 모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종사를 지원하는 여성 후배들에게 "조종사라는 직종에서도 여성에 대한 문호가 더욱 개방되는 만큼 가능성이 무한한 직업이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하라"고 조언한다.

양주희 육군 소위 예비합격자로 들어간 육사에서 최우수 졸업

군인으로서 미래가 기대되는 또 한 명의 차세대 여성 리더가 올해 탄생했다. 3월 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합동임관식에서 소위 계급장을 단 양주희 육군 소위가 주인공이다.

양 소위는 올해 205명의 육사 69기 졸업생 중 가장 성적이 우수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쉽게 말하면 수석졸업생이다. 그런 그도 4년 전 입학 당시에는 몇 명의 합격자가 다른 학교를 선택하기를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던 예비합격자였다. 하지만 졸업식에서는 1등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결과의 밑바탕에는 그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다. 곱상한 외모와 달리 그의 내면에는 적극성과 강인함이 내재돼 있다. '최선을 다하자'는 그의 좌우명에서도 알 수 있듯 주어진 '숙제'는 어떻게든 완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예비합격자였던 것을 되새기며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생도시절 힘들 때마다 달리기를 하며 마음과 체력을 다졌다. 불합격할 뻔했던 내게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육사 관계자는 "양 생도는 학업성적뿐 아니라 적성·체력·내무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생활한 생도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생도시절 동아리 유도대회에서 개인전 2위를 차지하고, 마라톤에 두 번 도전해 기어코 풀코스를 완주했다. 또 30차례에 걸친 헌혈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섰다.

그는 "지난 4년간 육사에서 소중한 것을 많이 배웠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족과 동기들이 있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임관 후에도 그 동안 배운 지·인·용 정신을 바탕으로 육사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G

글·박기태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남성 영역' 편견 딛고 '유리천장' 돌파

한국 최초의 우주인, 노벨상 다가선 과학자 등 여성 과학기술 연구원 전체 17% 웃돌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서도 여성 파워가 쑥쑥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은 2010년 기준 3만6,360명으로,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17퍼센트를 웃돈다. 모두 여성이 과학기술에 약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 '유리천장'을 깨뜨린 주인공들이다. 이 가운데 많은 여성이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과학기술계에서 리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김빛내리 교수

마리 퀴리는 최초의 프랑스 소르본대(현재 파리4대학) 여교수였다. 그러나 노벨상을 두 차례나 받은 마리 퀴리 교수도 파리 과학아카데미의 정회원이 되지는 못했다. 여성이라는 한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는 마리 퀴리가 살았던 당시 프랑스와 사정이 현저히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발표한 '2011 여성과학기술인력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은 2010년 기준 3만6,360명이다. 전체 21만685명의 17.3퍼센트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이 거의 없으리라는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비율이다.

섬세하고 꼼꼼한 여성만의 장점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증거다. 이들 한국 과학계에서 활약하는 여성 과학자들 중 일부는 남성에 비해 과학기술적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리라는 편견을 깨고 리더로서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김빛내리 교수 한 우물 파는 열정으로 노벨상 가능성 열어

과학계의 우먼파워는 세계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2002년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RNA(세포에서 유전자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생성 과정을 밝혀내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과학자로 떠올랐다.

김 교수도 학계의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재계약을 걱정하던 무명의 학자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는 1992년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힘든 연구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 우물을 파는 뚝심으로 끈질기게 RNA 연구에 매진해 지금은 이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학자로 우뚝 섰다.

그는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마이크로RNA 대표과학자로 거듭났다. 2002년 마이크로RNA 연구를 시작한 이래 학술지 〈네이처(Nature)〉와 〈셀(Cell)〉에 수 편의 논문을 실었으며, 2010년에는 〈셀〉 편집위원으로 선임됐다. 〈셀〉은 〈네이처〉 〈사이언스〉와 함께 세계 3대 과학학술지로 꼽힌다.

그의 연구 열정은 최근까지도 전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마이크로RNA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RNA 변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효소들을 발견한 업적도 그가 해낸 것이다. 이 연구 결과로 그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로 학계에서는 평가받고 있다.

정희선 원장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마약검사법 개발

왠지 남성들의 세계로 여겨지는 과학수사분야에서 마약검사법 표본을 만든 리더도 여성이다.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정 전 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시절 약독물과장·마약분석과장·법과학부장을 거쳐 200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사상 첫 여성 원장에 올랐다.

정 전 원장은 국내 최초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을 검출하는 시험법과 모근을 이용한 필로폰 검사법을 탄생시켰다. 약학대 시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오수창 소장의 강연을 듣고 과학수사에 매력을 느낀 그는 졸업 후 197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들어갔다. 주변에서는 여성에게는 험난한 길이라고 말렸지만, 그는 뚝심 있게 30여 년간 연구 끝에 마약 감정 전문가로 명성을 날렸다.

그는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마약검사법과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마약범죄가 성행하기 전인 1980년대 초부터 동물실험을 통한 마약검사법 개발에 매진했다. 이후 증가세를 보인 마약 관련 범죄에서 마약 검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07년에는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제7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수상했으며,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국제법독성학회장에 뽑혔다.

그는 원장 재임기간 포용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직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배려했다는 것이 당시 근무자들의 중론이다.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직원들을 대해 인기가 높았다. 그 역시 승진에서 밀리는 '유리천장'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자신을 붙잡아준 직장 동료들을 통해 리더로서 필요한 진심 어린 인간관계를 배웠다고 나중에 술회했다.

그는 3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퇴임했다. 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입성했을 당시 3명에 불과했던 여직원은 현재 43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의 원장 재임기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원'으로 승격했다. 향후 후배 과학자 육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힌 그는 아시아 과학수사 수준을 높이는 비전 실현을 다음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이소연 박사 강인한 체력으로 우주 날아가 과학 비밀 풀어

국내에서 손꼽히는 과학자 중 이소연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가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 박사는 2008년 4월 우주비행 임무를 무사히 수행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우주과학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했다. 이 박사는 광주과학고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박사과정을 밟던 중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타이틀을 놓고 당시 삼성종합기술원의 고산씨와 경쟁을 벌였다. 공교롭게도 성 대결이어서 더 언론의 화제와 주목을 받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 박사가 국내 최초 우주인이자 아시아 두 번째 여성 우주인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박사는 9박10일 동안 국제 우주정거장에 머무르며 과학실험을 했다. 우주에서 초파리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무중력 상태에서 얼굴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지상에서 실험이 불가능했던 연구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한국 과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대중강연 등 외부활동을 하며 우주생활 경험을 대중과 공유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우주인으로서 행보는 우주과학기술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최근 나로호 발사 성공에 "자랑스럽고 미안하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박사가 우주비행 전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포부가 실현된 셈이다.

글 · 김슬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여성도 1,000억 매출 벤처 꿈 갖자"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여성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터…"

"한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여성 벤처기업입니다." 이은정 신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따뜻함과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여성 리더십을 강조한다.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가장 잘 안다"는 말처럼 이회장은 여성 리더십 시대를 이끌 대표적 기업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원두커피 1위 기업인 맥널티코리아를 20여 년간 이끌며 최근 제약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한 이 대표를 만났다.

박상문 기자

이은정 신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천안에 위치한 맥널티코리아의 첨단 로스팅 공장에서 '커피 벤처'를 일궈냈다.

"첫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 단체장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그런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성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49) 한국맥널티 대표이사는 지난 1월 30일 한국여성벤처협회 8대 회장에 취임했다. 2년의 임기 동안 이 회장은 여성벤처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 벤처기업은 일반 여성기업과 비교해 20배의 매출액과 5배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여성 기업인의 성공사례를 공유해 여성도 1,000억원 가치가 있는 벤처의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벤처기업은 전체 중 7퍼센트 정도입니다. 비중은 적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섬세함을 살려 스마트 영역과 자신의 분야를 융합해 더 빨리 고부가가치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남성들이 주도해 왔지만 여성 기업인들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성들도 그런 지원에만 기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력단절녀들은 도전정신을 갖고 산업계로 나오길

이 회장은 1997년부터 한국맥널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맥널티는 국내 원두커피 시장 1위 기업이다. 원두커피 유통뿐 아니라 편리하게 원두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아 인기를 끌고 있다. 커피를 좋아하는 그는 20년 전 커피 체인점을 창업하며 불편해서 원두커피를 못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커피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커피 수입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며 그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흔히 '벤처는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직접 해보면 이 말이 피부에 더욱 와 닿아요. 1990년대에 원두커피를 만들 때 관련 지식도 부족해 외국에서 물어 물어 배워야 했어요. 그러니 관련 인력은 더구나 구하기 어려웠죠. 실수를 연발하면서도 테스트를 계속하며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았죠. 전문 인력도 시간이 지나니 자연히 해결되더라고요."

그는 직원들과 함께 일일이 책을 찾아가며 하루 10잔 이상의 커피를 마셔야 했던 '쓰디 쓴' 노력을 지금도 잊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맥널티는 이제 연 매출 150억원을 자랑하는 탄탄한 회사로 성장했지만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6년 커피 공장을 확장하며 새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그는 경매 물건으로 올라온 한 제약공장을 매입했다.

"인수하고 나서 공장을 둘러보니 시설이 무척 잘돼 있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개의 건물 중 제약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미 뿔뿔이 흩어진 제약회사 직원들을 모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제약분야는 비전문가였지만 사원들을 독려하고 연구인력을 충원해 한국맥널티 의약품사업부를 만들게 됐어요." 의약품사업부는 우연한 계기로 미국에 어린이용 시럽을 수출하기 시작하며 활로가 트였다.

"처음에는 커피 사업가가 무슨 제약 벤처냐며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하는 기업은 어떤 업종이든 벤처입니다. 많은 여성이 벤처의 벽을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벤처협회의 문을 두드리면 아무리 소소한 아이템이라도 함께 벤처로 인증받을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2003년부터 여성벤처협회 이사로 활동하다 2007년 부회장, 2011년 수석부회장을 거쳐 올해 회장에 선출됐다.

그는 "20대에 창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더 잃을 것이 없는 20대에는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 경력이 10~20년 쌓인 여성 산업인력들은 자신의 경력을 단절하지 말고 산업계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G

글 · 김지연 기자

트렌드 연구 | 여성이 중심인 '위미노믹스' 시대 열리나

중앙포토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2월 25일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취임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견고하게만 보였던 유리천장이 깨지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여성이 경제·산업계에서 강력한 파워를 갖는 '위미노믹스(womenomics)'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무역회사 엠슨을 이끌고 있는 이민재 대표는 두 달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에 올랐다. 그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리더십을 내세운다. 그는 전업주부였으나 남편의 퇴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1985년 42세의 나이로 5,000만원을 들고 창업했다. 그 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떠올리며 이겨냈다. 현재 회사의 연 매출은 200억원이 넘는다.

이 회장은 모성애 같은 부드러움으로 직원들을 이끌었다. 따뜻함과 성실함, 긍정적 마인드로 일하는 '어머니 리더십'을 성공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는 "여성이 경제의 주역이 된다면 가정이 풍성해질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더욱 투명해지고 나아가서는 경제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과 관련 지원 사업이 뒷받침된다면 그야말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 시작 10년 만에 매출액 1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을 일군 신화적 여성 CEO도 있다. 조선혜 지오영 그룹 회장이다. 조 회장 역시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당찬 여성 경영인으로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공격적 인수합병(M&A)과 과감한 투자로 큰 성공을 이뤘다. 그가 경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지오영과 지오영네트웍스가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되면서 재계의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의약계에서는 여장부 CEO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 회장은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 전국의 유통망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회사 특성에 맞게 조 회장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조 회장은 "많은 문제점은 긍정의 힘과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조직 간의 원활한 소통이 회사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다. 조직과 조직원 간의 화합과 소통이 이뤄져야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미노믹스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그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1,000대 국내기업 중 여성이 CEO를 맡은 기업은 9개에 불과하다. 전체의 1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국내 경제계에서 여성 경영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여성이 주요 보직에 오른 뒤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흔치 않다. 중간관리자를 거쳐 CEO 후보생으로 볼 수 있는 임원까지 오르는 '커리어 사다리'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인드라 누이 펩시코 회장 겸 최고경영자, 우르술라 번스 제록스 회장 겸 CEO, 헤더 브레시 밀란 CEO 등 세계적 여성 CEO들은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글로벌 기업의 사령탑에 올랐다.

아직까지 한국 여성이 임원 등 기업 고위직에 오르는 비율은 아시아에서조차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1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한 21개국 90여 명의 동포 여성 리더들이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모국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성공보다 주위에 줄 도움 먼저 고민을"

불리한 조건 극복하며 세계 각국에서 전문분야 리더로 열정 이어가

72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이민 1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은 좁았다. 단순 노무직이나 세탁소·음식점을 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민 1.5세대와 2세대로 넘어가면서 각자 거주하는 나라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오르는 글로벌 코리안 리더들이 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꿈을 성취한 여성 글로벌 코리안들을 소개한다.

언론인 되겠다는 희망 품고 치열하게 노력

원정희 미국 CBS PD

헤더 원(40)씨는 잘나가는 동포 여성이다. 〈뉴스위크〉 〈타임〉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를 거쳐 미국 3대 방송사 가운데 하나인 CBS에서 메인 뉴스 프로듀서로 일한다. 동양인 여성이라는 불리함을 이겨내고 글로벌 저널리스트로 당당하게 자리잡았다.

그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이름 헤더 원, 한국 이름이자 세번째 이름 원정희, 그리고 첫번째 이름 '원주애'다. 첫 이름은 그의 출생과 관련이 있다. 원씨는 태어난 직후 원주의 한 가정집 앞에서 발견됐다. 말 그대로 '원주에서 발견한 아이'라는 의미다. 보육원에 맡겨진 원씨는 9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되며 헤더 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미국사회에서 동양인 여성으로서 한계에 부닥치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TV에 나오는 언론인이 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치열한 노력을 통해 결국 꿈을 성취해냈다.

그의 세번째 이름 원정희는 2010년 생겼다. 입양 이후 첫 방한이었는데 내친김에 한국 이름을 만들었다. 실제 성씨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는 '원'이라는 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의 고향일 가능성이 높은 원주와, 그곳에 살았을지 모르는 부모를 연결해주는 마지막 고리이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원씨를 만난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당신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라며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원씨는 치열한 노력으로 언론인의 꿈을 이뤘듯, 언젠가는 고향과 부모를 찾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착실한 학업 거쳐 90 대 1 경쟁률 뚫어

김윤정 브라질 자리노시 검사장

김윤정(33)씨는 브라질 이민 1.5세다. 김씨가 열 살 때 가족이 브라질로 이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20년 만인 지난 2009년 상파울루주 인구 2만4,000명의 소도시 자리노시의 검사장 자리에 올랐다. 한국계 이민자로서는 대단한 성공이다.

김씨는 청소년 시절 일찌감치 검사의 꿈을 키웠다. 2002년 상파울루카톨릭대 법학대학원에 다니며 착실히 검사시험을 준비했다. 결국 2003년 9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검사에 임용됐다.

김씨는 이민 후 2011년 처음 한국을 찾았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젊은 글로벌 코리안 리더를 위해 주최한 포럼에서 강연하기 위해서였다. 강연을 통해 김씨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겠다는 목적보다 자신이 주위에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사를 마친 다음 그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 다시 돌아와 이곳 저곳을 둘러보니 고국의 발전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면서 "상파울루를 대표하는 검사장이 돼 한국인의 긍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국적 포기 않고 변호사 도전

김미사 재일 변호사

김미사(27)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이다. 2011년 일본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게이오대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는 변호사다. 어린 시절 김씨는 언론인을 꿈꿨다. 하지만 대학 입학 직후 아버지를 여의며 생각을 바꿔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아버지 고 김경득씨는 일본 1호 한국 국적 변호사다. 그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다는 조항에 맞서 싸운 끝에 일본 내에서 한국 국적을 지닌 첫 변호사가 됐다. 이후 재일동포 국민연금소송, 지문날인거부운동, 일본군위안부 전후 보상 소송 등 재일동포의 인권 및 전후 보상 소송을 이끌었다.

딸 미사씨는 판사를 꿈꿨다. 하지만 일본에서 외국 국적으로는 판사가 될 수 없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지만 김씨는 부모님이 힘겹게 지켜온 한국 국적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박사과정을 마친 다음 계속 학교에 남아 일본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아버지의 투쟁으로 차별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일본 내에서 소위 일류대에 재일동포 교수는 드물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느 직업, 어느 위치에나 한국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살려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고 싶고요."

현재 일본에서는 약 50명의 한국인이 법조계에서 활동한다.

교육에는 유익함과 즐거움 함께 있어야

이세나 유니세프 교육담당 컨설턴트

이세나(34)씨는 방콕에 있는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교육담당 컨설턴트다. 주업무는 아시아 지역에서 각국 정부와 민간기관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그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이씨는 1989년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했다. 영어를 못해 수업 진도를 따라가질 못해 어린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의외로 다른 아이들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모습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다.

"성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예능 등 재능이 있으면 이를 살려주는 모습에 교육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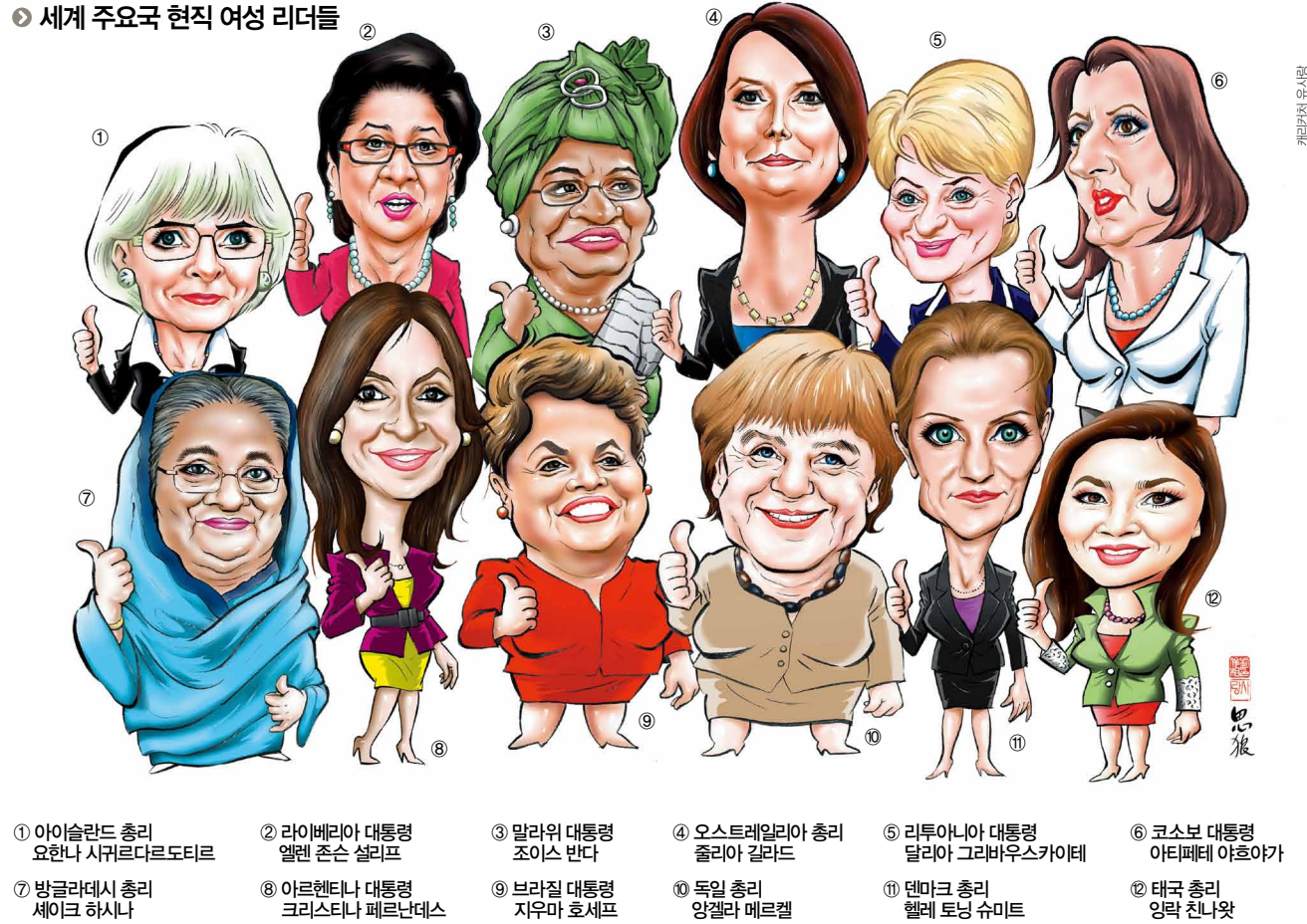
이런 생각은 그가 미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좋은 교육은 아이들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결국 그를 전문직으로 이끌었다.

이씨는 대학에서 정책분석 및 경영학을 전공한 뒤 2005년 하버드대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프로그램에 선발돼 유니세프 교육담당 컨설턴트로 뽑혀 동남아에서 일해왔다.

그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들었다"며 "정말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지원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G

글·조용탁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세계 주요국 현직 여성 리더들

① 아이슬란드 총리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② 라이베리아 대통령 엘렌 존슨 설리프 ③ 말라위 대통령 조이스 반다 ④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줄리아 길라드 ⑤ 리투아니아 대통령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⑥ 코소보 대통령 아티페테 야흐야가 ⑦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 ⑧ 아르헨티나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⑨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⑩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⑪ 덴마크 총리 헬레 토닝 슈미트 ⑫ 태국 총리 잉락 친나왓

세상의 구원투수, 여성성이 세상 이끈다

섬세함·강인함·책임감이 돋보이는 세계 여성 리더들의 눈부신 업적

독일의 문호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끈다"고 썼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역사를 훑어보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여성 리더들이 등장한다. 늘 큰소리치며 강해 보이던 남성 리더들이 위기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 강인한 여성 리더가 나타났다. 늘 2선에만 머무를 줄 알았던 여성 리더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를 이겨냈다. 여성의 숨겨진 강인함이 그 원동력이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늘 남성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였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공화정은 물론 18세기 말 유럽의 몇몇 민주정에서도 여성은 투표권조차 없었다. 여성의 선거권 인정 여부는 19세기 들어서야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성이 어려운 정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편견 때문이었다. 1893년에 이르러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했다. 선거권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여성이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까지는 1세기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 지구촌이 여성 리더십을 제대로 인정하기까지는 세계 각처에서 뛰어난 여성 리더들의 두드러진 활약이 있었다.

메르켈 섬세한 리더십으로 통합의 정치 실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여성 리더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59) 총리다. 독일 통일 전 공산국가이던 동독에서 자란 메르켈은 라이프치히대에서 물리학을 공부했다. 베를린 과학아카데미 물리화학연구소에서 양자화학분야 연구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여성 과학자였다. 그런 그가 1989년 독일 통일의 격동기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헬무트 콜 내각에서 여성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메르켈은 복잡한 독일의 정당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메르켈 총리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 노선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고 둘 다 보수정당의 당수라는 점, 그리고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다"며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기도 했다.

2000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기독민주연합(CDU) 의장직을 맡은 메르켈은 여러 정당과 대연정을 통해 2005년 말부터 독일의 8대 총리직을 맡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통합'의 정치를 이끈 정치인이다. 독일 통일 이후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성공적으로 안정시켰다. 야당인 사민당과 대연정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흡수하는 등 섬세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동독에서 성장한 메르켈 총리는 서독을 차별할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집권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빠른 시간 내 동·서독 간 통합을 이끌어 내고, 유럽 전체에서 통일된 독일의 영향력을 크게 넓혀나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유로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은 연일 독일에 거액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를 막아내 유럽의 경제위기가 독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독일경제를 더욱 생산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대처 강인한 리더십으로 위기의 경제 극복

현대 여성 리더십의 대표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영국의 마거릿 대처(88) 전 총리다. 옥스퍼드대에서 화학을 배운 대처는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해 29세에 변호사가 됐다. 34세에 의회에 첫발을 들인 뒤 1975년 영국의 첫 보수당 여성 당수가 됐다.

1979년 총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첫 여성 총리가 됐다. 이후 위기에 빠진 영국경제를 살려내 11년간 영국 역사상 최다인 3선 총리가 됐다.

대처는 1970년대 국가부도 사태로까지 몰렸던 영국을 구해낸 '철의 여인'이다. 뚜렷한 개혁 의지를 내세우며 몰락하는 영국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과감한 시장주의 경제를 도입해 장기간 이어지던 석탄노동자의 파업을 진압하고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한편 영국의 망국병이라고 불리던 사회복지 혜택을 크게 감축했다. 아르헨티나와 싸운 포클랜드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철의 여인이라는 면모를 대외에 알리며 강한 영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바첼레트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높은 지지 얻어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62) 전 대통령 역시 뛰어난 여성 리더십을 보여줬다. 피노체트 정권 아래 모진 고문을 이겨낸 의학도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을 맡아 강한 여성 리더의 면모를 보였다.

대통령에 오른 뒤에는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의식을 크게 끌어올렸다. 유엔 여성기구 대표를 맡으며 세계 여성 리더십을 키우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세계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노력했다.

중도실용주의 리더십으로 경제성장을 건실하게 이뤄내 2010년 1월 칠레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시켰다. 세계 최대 재앙으로 손꼽히는 칠레 대지진을 책임감 있게 수습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줬다.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으로 2010년 퇴임했지만 책임지는 정치를 목격한 칠레 국민은 퇴임 직전 여론조사에서 85%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보여줬다.

호세프 연이은 경제위기 막아내고 빈곤 퇴치

연이어 밀어닥치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척척 막아내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66) 대통령도 세계적 여성 리더십을 보여준다.

1960년대 반정부 게릴라로 활동하다 민주화 이후 공직에 발을 들였다. 2003년 룰라 다 실바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자원부 장관을 하며 여성 리더십을 펴 보이기 시작했다.

2011년 대통령이 된 이후 브라질의 빈곤 퇴치와 지속적 성장 정책을 병행하며 세계인의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있다. 세계경기 후퇴 국면에서도 브라질 고속철도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입안하며 강인한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G 글·박상주 기자

왜 여성 리더십인가

여성 리더에겐 섬세한 시각과 특유의 포용력이 있기 때문

21세기 들어 '여성 리더십'이 각광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왜 여성 리더십인지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꼽아봤다.

먼저 딱딱한 남성적 리더십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의 리더는 남성이었다. 이들은 양보의 미덕보다 공격적 자세로 자신의 목적만 추구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왔다.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는 모습에 국민은 지쳐왔다.

이미지와 감성 시대의 도래도 여성 리더십 시대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가 성숙하고 세분화하면서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여성은 멀티태스킹 능력과 타문화에 대한 적응력에서 남성보다 뛰어나다.

여성 리더십이 각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성이 사회·복지·교육분야에 대거 진출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들 분야에서 여성 전문인력이 빠르게 자리잡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 또 영·유아원과 초·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 선생님의 지시를 받는 일이 많아지며 여성 리더의 출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주요 선진국의 여성 지도자들은 화끈한 추진력과 여성 특유의 포용력을 펼쳐 자국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사회통합과 경제발전, 정권의 도덕성 면에서 남성 정상들보다 우월한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진행된 권위주의의 해체도 여성 리더십 시대를 앞당겼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부장적 유교문화를 사회규범으로 삼아 왔다. 여기에 군사정권 시절까지 겪으며 사회에 상명하복의 문화가 배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외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한국인에게 더 이상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문화를 강요하기 어려워졌다. 대화를 중시하고 감성적인 면을 인정하는 여성 리더십은 사회적으로 제 시기를 만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현상으로 자리잡은 여성 리더의 등장이 있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탁월한 여성 정치지도자가 연달아 나타나면서 한국에서도 여성 리더의 장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처 전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등은 화끈한 추진력과 동시에 여성 특유의 포용력을 펼치며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자국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사회통합과 경제발전, 정권의 도덕성 면에서 남성 정상들보다 우월한 면모를 보여줬다.

조직의 크기에 관계 없이 리더는 외로운 자리다. 고뇌하며 결단을 내리고, 결과에 대해 홀로 책임져야 한다. 한국에서 늘어나는 여성 리더들이 명심할 부분이다.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특유의 포용력으로 주위를 품어 안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여성 리더가 한국사회에서도 더 많이 등장하기를 기원한다. G

글·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주말에는
운전대를 놓자!
쉼
368008
itx 청춘
Good bye~
아빠에게는 진정한 휴식을
아이들에게는 낭만과 추억을
주말에는 즐거운
가족기차여행을 떠나세요
KORAIL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수요자마다 형편 살펴 섬세한 지원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국정목표는 '맞춤형 고용·복지' 제도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애주기와 생활영역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할 때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전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의 네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 해외원조가 없으면 국민 대부분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한국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성장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는 성장 쪽에 무게를 싣는 정책을 폈다. 기업이 세계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했고, 국민은 이 결과에 따른 나라의 발전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힘을 보탰다. 그 과정에서 나눔과 복지, 사회보장제도는 뒤로 밀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국정목표가 '맞춤형 고용·복지'다. 박근혜정부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0~5세) 확대, 교육비(학자금) 부담 경감, 기초연금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울 용산에서 의료단체 봉사단원들이 취약계층에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복지 통합 관리 시스템 만들어 중복 없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모두 1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전략은 두 개의 큰 그림에 초점을 맞췄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이 좋은 예다.

최저생계비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통합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새로 준비한 정책은 맞춤형 급여체계다. 저소득층의 수입구조와 환경을 더욱 세분화해 각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혜 대상자의 환경을 의료·주거·교육·통신·문화 등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예컨대 의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교육비 지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집중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돕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적용될 전망이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제도를 조정하고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다.

복지정책에서 국민과 정부가 만나는 접점은 주민센터로 일원화한다. 주민센터를 복지 서비스의 허브 기관으로 삼아 복지직 공무원·서비스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복지사업 기준을 표준화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합·연계할 방침이다.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로 자리잡을 때까지 시·군·구별로 '내일행복지원단'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된다. 영·유아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늘어났고,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학업을 중단했거나 인터넷 중독에 빠진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청소년문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인상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 시스템도 일원화한다. 한부모가족 공동 주거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 연금이 도입되면 그동안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연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어르신 일자리가 연간 5만 개 확충되고 보수도 월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 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된다.

장애인·다문화가족과 농어촌 복지도 강화

의료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환자 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화한다.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에도 힘을 기울인다.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농·어촌 취약지에 기초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한다. 지역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는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체계적 의료 공급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혜택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늘리고 급여를 확대한다. 응급안전시스템과 단기 및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룹홈 등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기초연금 개선 방향에 맞춰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대상도 확대한다.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학교를 신·증설하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높인다.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마크제를 실시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결혼이민자에게 정착 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다문화가족 출신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돕는 문화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생활여건 개선에도 나섰다.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공동생활 홈을 조성하고 마을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2011년부터 추진 중인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색깔 있는 마을 5,000개를 육성한다. 체계적 지역개발을 위해 농·어촌마을리모델링특별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도 준비 중이다. G

글·조용탁 기자

추진전략⑦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국정과제

42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급여체계 구축
43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44 건강한 가정 만들기
45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46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47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8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49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50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강화
51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서울 중랑구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사회적기업 진목공방의 목공교육을 통해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다.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일과 복지 함께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

일과 복지를 연계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 탈출을 목표로 하는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은 '맞춤형 고용·복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추진전략이다.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도 담고 있다.

따뜻한 봄날 원목가구가 놓인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꿈꾼다면 나무 결 드러난 원목을 쓱쓱 썰고 다듬어 테이블이며 의자·책꽂이 등을 뚝딱 만들어내는 서울 노원구 상계5동의 '진목공방'을 찾아봐도 좋겠다. 진목공방은 주문가구 제작과 소품 제작 DIY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1년 서울 노원지역자활센터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블로그(blog.naver.com/jinmok_diy)도 운영 중이다.

서울 노원지역자활센터는 10개의 자활근로사업, 6개의 자활기업을 운영 중이며, 진목공방은 6개 자활기업 중 하나다. 김재현(37) 대표를 비롯해 모두 5명이 근무하는 진목공방은 일반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수급자가 함께 어울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일하는 희망의 터전이 되고 있다.

진목공방 김재현 대표는 "그동안 진목공방 직원 가운데 한 분이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났고, 지금도 직원 중 두 분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그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지역자활센터나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수급자들에게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의 최종 목표는 수급자의 신분을 탈피하도록 돕는 데 있다.

진목공방처럼 자활센터를 기반으로 출발한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경영 컨설팅 제공,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시설비·세제·인건비·사업개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활 근로 기회 제공 최종 목표는 빈곤 탈출

'맞춤형 고용·복지'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진목공방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비롯해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등 4가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국정과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 첫 번째 추진계획이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 구축'이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체계를 개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세제'를 전면 적용하고, 생계급여 수급에 의존해 생활하기보다 취업한 다음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도록 급여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의 두 번째 추진계획은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다.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고용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의뢰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 의지가 약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고용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자활센터, 희망리본사업 등을 통해 취업에 다시 도전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활센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자활기업은 진목공방의 경우처럼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추진전략⑧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국정과제

- 5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5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 54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55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라는 국정과제는 고용 쪽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구직등록부터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펼쳐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중장년·여성·근로빈곤층·장애인·제대군인·퇴직경찰 등 대상별로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공공·민간 간 일자리 정보망으로 연계한다는 '일자리종합정보망' 구축계획 등도 있다.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다. 최근 업무량이 폭증해 문제가 된 민간·공공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인력을 확충하고, 사회복무 요원을 사회복지분야에 우선 배치하며, 급여 인상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가사간병·노인돌봄종합·장애인활동지원·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복지 서비스 수요가 많은 '4대 돌봄 바우처사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질 높이기도 고용과 연계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산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다. 돌봄·건강관리·상담 등 국민 욕구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참여형 직접지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에도 투자해 소셜벤처 창업, 사회서비스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육성과 체계적 관리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여기에는 '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율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일이 복지로 연결되고, 복지가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것이 추진전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의 지향점이다. Ⓖ

글·박경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낮은 눈높이에서 함께 머리를 맞댄다

한국 서민·중산층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도한 대출금과 전·월세 급등으로 생활의 근간이 흔들린다.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해법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한 시점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단순한 복지의 증가는 결국 세금 증대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주거·금융·생활·고용 등 생활 전반을 깊게 들여다보고 체계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중앙포토

박근혜정부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고금리의 덫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를 구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제도인 바꿔드림론은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 '집'은 특별하다. 단순한 생활의 터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과거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일생의 꿈으로 삼은 이유기도 하다. 이 소박한 꿈이 많은 사람을 위기로 내몰았다. 집값을 포함해 영원히 오를 것 같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 탓에 수많은 '푸어'를 양산했다. 내 집을 갖고도 가난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하우스푸어),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하는 사람(렌트푸어), 최소한의 보금자리조차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까지 모두 집을 놓고 한숨짓는 사람들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들을 위한 입체적 대안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주택지분 매각제'다.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만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원래의 보금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하우스푸어는 빚을 내 산 집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면서 안정적 주거환경을 꾸릴 수 있다.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60세에서 50세로 지원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목돈 없이도 전세금 올려주는 방안 마련

렌트푸어들을 위해서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제시했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만큼 본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모든 전세 계약자가 아닌 전세 재계약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세입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위험이 따르지만, 이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와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추진한다.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잘 마무리되면 더욱 많은 시민이 보금자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양한 분야의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각종 금융부채·교육비·통신비 부담이 대표적이다. 박근혜정부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 부담 완화대책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행복기금 설립과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다. 고금리 대출에 시름하는 상당수 국민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낮은 금리의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8,700억원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2월 말 기준 6~12개월 이상 연체자의 채무액 30~50퍼센트를 탕감해주고 잔액은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준다.

현재 국민 소비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교육비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눈높이 대책도 내놨다. 교육의 경우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것이 고교 무상교육이다.

박근혜정부는 지역별·소득계층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와 EBS 교육 서비스 운영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정책도 국민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5년까지 완전 폐지를 유도하며, 기존 이동전화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도 강화한다. 고가의 단말기는 물론이고 통신망까지 소비자의 선택폭과 참여 기업을 늘려 선의의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다.

안정된 서민생활이 마련되면 이 효과가 '고용'까지 이어져야 좋은 정책이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은 2개의 큰 축이 중심이다.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이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한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월 4일 이마트는 "매장 진열을 담당해온 하도급 회사 소속 직원 1만여 명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사내 하도급 정규직 전환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앞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전략⑨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국정과제

56 주거안정 대책 강화
57 서민 금융부담 완화
58 교육비 부담 경감
59 통신비 부담 낮추기
60 농어가 소득 증대
61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6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63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64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이마트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 전환 성과

또 다른 축은 정년 연장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여건 개선이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와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종합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방안,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서민정책을 살펴보면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서민을 돕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주력한다. 제도를 강제하기보다 사회 전반의 인식이 올라가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다시 서민의 삶을 옥죄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서민의 입장에서 고민한 많은 해결책이 빛을 볼 날이 머지않았다. G

글·박성민(이코노미스트 기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출산·양육 무거운 짐 국가가 부담

저출산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 중 하나다. 이를 풀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 우선 영·유아 육아지원 범위와 규모를 크게 늘렸다. 나아가 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박근혜정부가 준비한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책을 소개한다.

출산을 앞둔 직장인 김수진(28)씨는 최근 들어 고민이 많아졌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친구들로부터 양육비나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 등 현실적 고민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육아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설레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박근혜정부를 향한 여성들의 바람도 김씨의 고민과 같은 맥락이다.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이 3월 5일 여성노동자 1,387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2퍼센트가 '출산 및 육아 관련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35.3퍼센트의 여성이 '고용안정'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김씨처럼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공약 중 특히 출산 및 육아정책을 취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취임사에서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출산·육아정책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복지 구상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확대, 다른 하나는 출산휴가와 육아시설 확충 등 여건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먼저 임신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비용 지원이 크게 는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저귀·조제분유·영양플러스 서비스를 지원한다. 영양플러스란 영양이 부족하기 쉬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하기 전 방문간호와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예방접종도 만 12세까지는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예방접종 항목도 기존 10가지에서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포함해 11가지로 늘어난다.

추진전략⑩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국정과제
65 행복한 임신과 출산
6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7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68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자녀장려세제(새 아기 장려금)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환급형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소득수준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총 한도 200만원까지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지원대상과 수준, 방법을 검토해 더욱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현행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 물량을 늘리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표 이후 큰 관심을 모았던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면제 공약'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양제·돌봄부터 교육비·주택까지 전방위 지원

올해부터는 무상보육 대상도 0~5세 영·유아 전체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15퍼센트 가정의 경우 0~2세, 소득하위 70퍼센트 가정은 3~4세까지만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저소득층은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에 시설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육수당도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0~5세까지 전 계층에 지원한다. 기존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의 차상위계층 가구에만 지급했다.

"태아도 예약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던 어린이집 문제도 개선한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96개, 공공형 어린이집은 약 700개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158억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기준은 사업장 내 또는 인근 지역, 사원주택 등으로 제한돼 설치를 대폭 확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 중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곳도 26퍼센트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 보육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맞벌이나 다자녀, 장애부모를 위한 영아 종일제 보육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만 12개월 이하의 아동에서 만 2세 이하까지 점차 확대해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이용 대상도 현행 취업부모 자녀에서 모든 아동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서비스 확대도 검토 중이다.

재학 중인 아이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생에게는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다. 특히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돌봄교육을 활성화한다.

여성인재 10만 명 키워 '유리천장' 제거 노력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한 말이다. 이런 박 대통령의 생각은 여성정책에도 잘 반영돼 있다.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 명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공직·교직·공공기관 등에서 솔선수범해 여성 참여를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각종 요직에 여성을 배치해 보이지 않는 여성차별을 뜻하는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여성인재를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만들어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인재 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 중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퇴직을 막겠다는 의도다. 여성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도 꾸준히 발굴해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인상할 예정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이란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 시설 확충 등에 나섰다.

박근혜정부가 당면한 저출산문제 해결 등의 과제는 2005년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을 때와 닮았다. 그는 보육시설에 15억 유로, 전일제학교 확충에 40억 유로를 투입하는 등 뚝심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2012년 〈포브스〉 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꼽히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정책의지가 확고하다. Ⓖ

글·남형도(포브스코리아 기자)

천왕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통령을 꿈꾸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토피 없게 통나무로 학교 만들래요"

서울 천왕초 아이들 창의 공약 쏟아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진지한 상상력 돋보여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까? 〈위클리 공감〉이 서울 소재 초등학교 2012학년도 3학년과 5학년 학생 68명에게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라는 주제로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어린이답게 깜찍하고 발랄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한편으로는 예상 밖으로 깊이가 있고 진지한 상상력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그림을 한 장씩 넘기며 그들이 꿈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본다.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아이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아이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순수한 마음과 맑은 눈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초등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림을 그린 뒤 그에 대해 발표하는 수업을 '드로잉앤토킹(Drawing and Talking)'이라고 한다. 창조적 생각을 먼저 떠올려 그림으로 구성한 뒤 말로 이를 설명하는 미술수업 방식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창조적 의견을 듣기에 좋은 교수법으로 교육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각종 교육기관의 공식적인 교실이나 미술대회가 열린 적이 없었다. 〈위클리 공감〉은 무작위로 미술교실을 정해 긴급 설문 방식을 취했다. 정부나 교육기관의 공식 미술대회가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어린이들의 창의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배경이 됐다. 2월 14일 서울 구로구 천왕초등학교 5학년 2개반과 3학년 1개반에서 미술수업을 진행했다.

미술교육 전문가인 이 학교 손균자(41) 교사의 자문을 얻어 학생들에게 1시간여의 시간을 주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라는 주제의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그림 뒷면에 의견을 적도록 했다. 학생들은 이들 그림을 가지고 짧은 발표시간을 가졌다.

수거한 그림 중 손 교사와 권영희 교사, 장대진 교사 등 담임교사가 모두 13장을 추렸다.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참신한 생각을 담은 작품을 우선 선정했다. 이들 13장 외에 소개하지 않은 그림도 아이디어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중복된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그림은 가능한 한 제외했다.

이들 13장의 그림에 코멘트를 달았다. 아이들이 말한 내용과 메모, 그리고 그림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코멘트는 아이들 생각의 극히 일부만 표현했음을 밝혀둔다.

전문적인 분석은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박지숙 교수가 맡았다. 68장의 모든 그림을 아동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어른들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도출했다. G

글·사진 박상주 기자

서울 천왕초등학교 (2012학년도) 3학년 꽃누리반 학생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그린 뒤 장대진 담임교사와 함께 그림을 들어 보이고 있다.

3학년 길우진

"남북통일부터 주택문제까지 8대 공약"

여러 컷의 만화를 그렸다. 남북통일은 물론 각종 복지문제와 환경·주택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급하고 5,000원짜리 식사를 1,300원에 제공하겠다는 등 서민경제를 걱정했다. 아파트보다 주택을 늘리고 나무를 더 심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당찬 공약도 밝혔다.

3학년 정예림

"무상교육과 반듯한 학교생활 실현"

어린아이들이 무상교육을 바란다면 사실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교육비를 걱정하겠느냐는 생각에서다. 물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아이들도 각종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들었을 것이다. 또 향후 들어가게 될 교육비에 대한 우려를 느낄 것이다. 정예림 학생이 그린 학교 그림에서는 교사가 잔소리를 하고 학생들에게 벌도 세운다. 하지만 아이들의 가지런한 모습에서 무상교육과 함께 반듯한 학교생활을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가난한 이에게 월 200만원 지급"

빈곤 퇴치에 관심이 많았다. "가난을 이겨내고 싶다"면서 제법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잘살 때까지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쌀 없는 사람에게는 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예빈 학생은 이런 정책이 모두 정부의 '서비스'라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정책 서비스를 하는 집단으로 보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숨은 의미를 읽을 수 있다.

3학년 이예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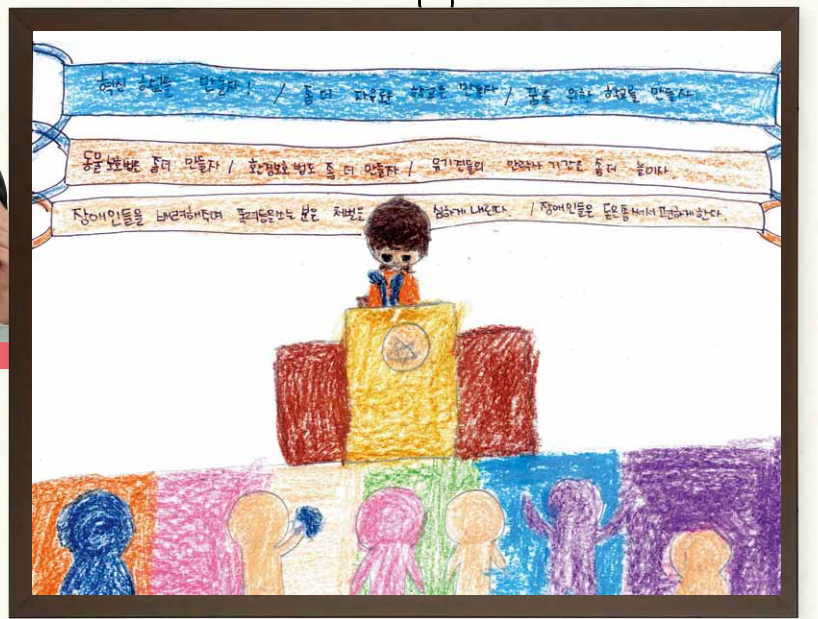
3학년 오명한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핵 포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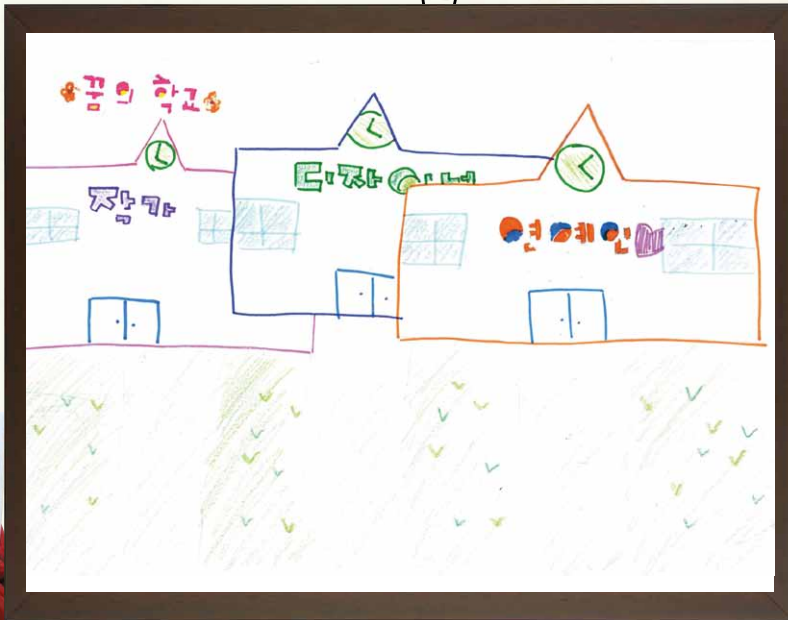
최근 불거진 북한 핵문제는 아이들 마음까지 흔들었다. 오명한 학생 외에도 핵문제와 남북 긴장에 대한 그림이 유난히 많았다. 대부분 평화적 협상을 바라는 그림이었지만 개중에는 전쟁 등 극단적 모습을 상상한 그림도 있었다. 오명한 학생은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림에 담았다. 협상이나 전쟁보다 합리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색다른 시각이 읽힌다.

5학년 꽃누리반 김연화

"유기견 좀 더 오래 살게 하자"

자유로운 학교는 많은 학생의 바람이다. 김연화 학생은 "좀 더 자유로운 학교, 꿈을 위한 학교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자연과 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동물보호법과 환경보호법을 강화하기 바랐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들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고 장애우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자신의 꿈에 맞는 학교 다니게 할 터”

신지원 학생은 앞으로 다닐 학교에 관심이 많았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자신의 꿈을 하나로 정하게 한 뒤 그 꿈에 맞는 학교에 다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공부를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꿈의 학교’라고 강조했다. 작가를 키우는 학교, 디자이너를 키우는 학교, 연예인을 키우는 학교…. 초등학생인 신지원 학생은 이미 특성화 교육을 이해하고 있었다.

5학년 꽃누리반 신지원

3학년 이혜인

“애완동물 돌봐주는 복지정책 어때요?”

아이들은 역시 애완동물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혜인 학생은 유아를 맡아주는 것처럼 애완동물을 맡아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제안했다. 보육 걱정을 던 부모님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강아지 걱정을 덜고 학교생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수만큼 애완동물을 키우게 하겠다”는 이혜인 학생은 “털 알레르기가 있는 국민에게는 금붕어를 키우게 하겠다”고 말했다.

5학년 꿈누리반 이수정

“집 주고 가난 벗으면 세금으로 돌려받아”

크게 3가지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우선 제공하고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세금으로 집값을 돌려받겠단다. 이 어린이는 복지를 우선 제공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국민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치를 알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30퍼센트, 유치원비를 반값으로 줄이는 정책도 내놨다. 이미 졸업해 자신과 무관한 유치원비를 더 많이 줄이겠다는 점에서 순수한 마음이 묻어난다.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차 많이 만들 것”

아이들에게 애완동물은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다. 애정의 상징이기도 해서인지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았다. 일견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확대를 상징하는 의미로 읽힌다. 또 태양광 에너지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많이 만들자고 말한다. 역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3학년 권태영

“산림개발 막아 보존하면 국가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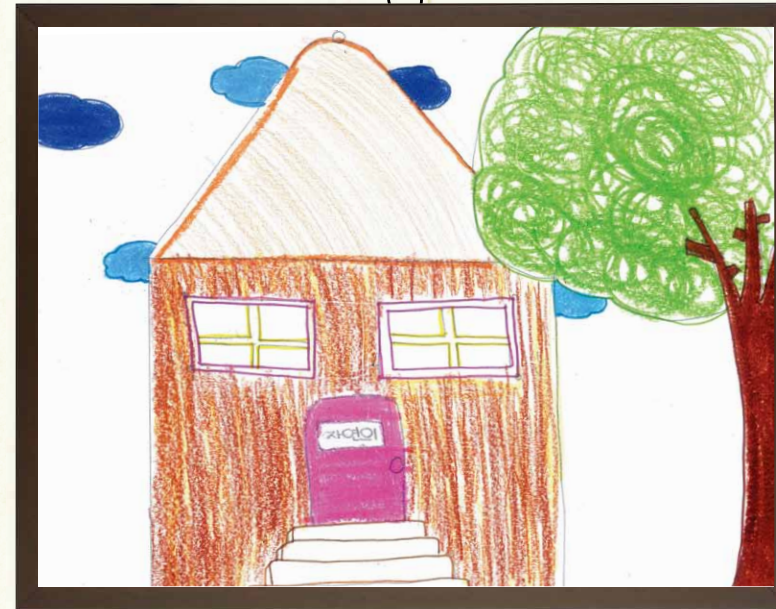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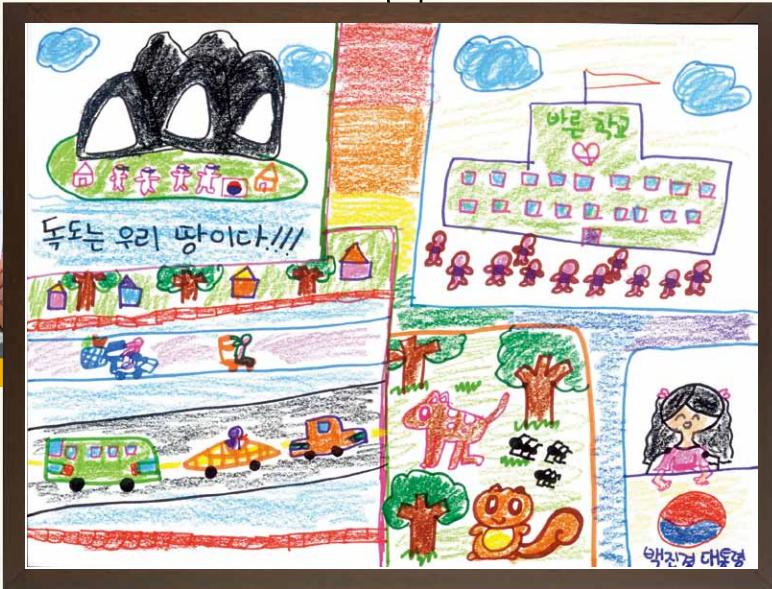
아름다운 국토, 과학기술의 발달, 든든한 안보. 이준화 학생이 꼽은 3가지 좋은 나라의 요건이다. 산림개발을 막아 산림을 보존하는 것을 ‘발전’으로 봤다. 개발만이 발전이 아니라 보존도 발전이라는 발상이 이채롭다. 일반적으로 남북통일의 결과를 평화나 국력 강화로 바라보는 데 반해 이준화 학생은 남북 협력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이유를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3학년 이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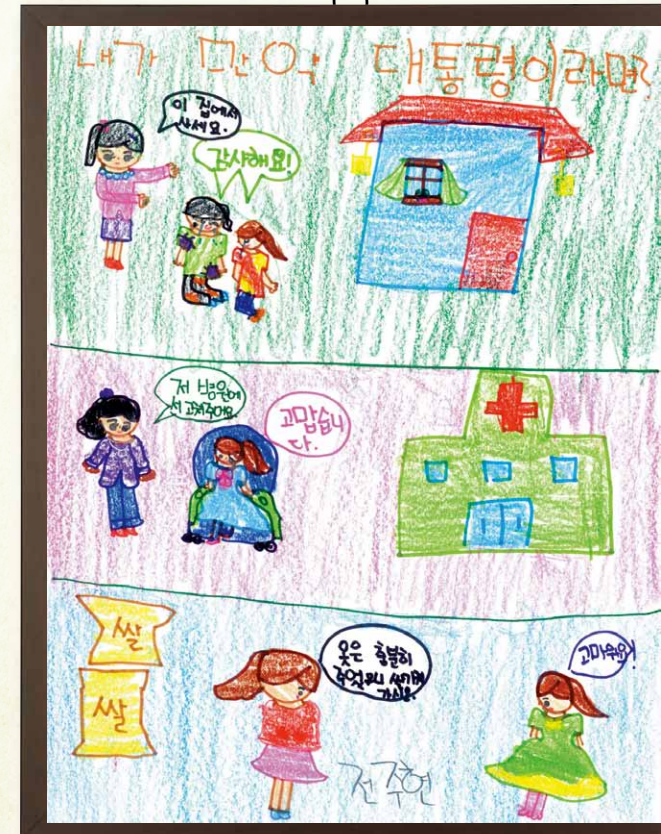
3학년 백진경

“놀 때는 노는 학교 만들래요”

백진경 학생은 그림을 들고 추진력이 느껴지게 말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교육감에게 말해서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려 일본이 더 이상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막겠다”고 야무지게 발표했다. 구체적인 대상을 짚어내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높았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3학년 박설아

“학교 환경 바꿔 아픈 친구들 돕겠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학교를 통나무로 만들겠다는 것. 그저 통나무학교가 좋아 보여서가 아니다. 피부염증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는 기특한 이유를 들었다. 주변에 아픈 친구들이 많다는 박설아 학생은 “아토피질환을 앓는 학생을 모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꿈꾸는 것은 아토피 때문에 결석하는 친구들이 없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학교다.

3학년 전주현

“의식주 제공해 국민 생존권 보장”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은 나라의 기본적 의무다. 전주현 학생은 집이 없는 노숙자를 위해 집을 제공하고, 가난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의류와 식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정책의 핵심은 역시 정부가 의식주를 제공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꿈을 이루는 학교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그린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그림 보니… 모두 행복한 나라 소망 오롯이 담겨

아이들 그림을 보고 많이 놀랐다. 이렇듯 아이들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혜안이 절로 생기는 모양이다. 한편으로 아이들이 어른처럼 걱정이 많아 보여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꿈은 크고 넓었다.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비교적 정확하고 다양하게 제시했다. 아이들은 모두 행복한 나라를 꿈꿨다. 나와 내 주변이 모두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노인·어린이·장애우 같은 약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림에는 민주주의·복지확대·교육개혁 등 다양한 가치가 담겼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였다. 저소득층·장애우·노숙자·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자는 그림이 특히 많았다. 사회복지관 증설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장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금제도 등 물질적·금전적 지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을 강조하는 그림이 많았다.

아이들 자신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담은 그림은 이미 대부분 정책화한 아이디어로 새롭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확대하고 좀 더 현실화하자는 아이들의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 종합하자면 다양한 복지정책과 지원을 통해 더불어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을 이루자는 꿈을 표현했다.

피부색 다른 이방인까지 품을 준비돼

아이들은 자유를 꿈꿨다.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갈망했다. 학원에 얽매이고 공부만 강요하는 학교나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자질과 소양을 키워나갈 배움의 학교를 원했다.

‘꿈을 이루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글귀를 넣은 그림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 교육혁신과 학교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우선 학습 부담이 적어 자유롭고 즐겁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학교였다. 꿈과 희망을 배우고 다양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참된 혁신학교가 확대되기를 바랐다. 흥미·적성·진로와 연계한 실질적 교육과정이다.

아이들의 꿈은 크고 넓었다. 마음은 진정 순수했다. 모두 행복한 나라를 꿈꿨다. 다른 사람과 나눔을 먼저 생각하고 자유롭게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워 나가기를 소망했다. 아이들은 자유를, 통일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다.

아이들은 또 통일된 대한민국을 꿈꿨다. 전쟁이나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남과 북의 동포들이 모두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다. 남북통일이나 군사력 증강 등의 주제가 많이 등장한 것은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각종 뉴스 매체들의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 역시 이런 상황에 불안감을 느꼈던 듯싶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 아이들은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했다.

아이들은 풍요한 나라를 꿈꿨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일자리 걱정이 없고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다. 돈이 없어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나라. 가난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온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들까지 아이들은 품어 안을 준비가 돼있었다.

아이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꼼수나 잔꾀를 일삼는 이기적이고 몰지각한 부류의 어른들을 추방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는 정의로웠다. 자신이 번 만큼 마땅히 세금을 내고,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순수했다. 다른 사람과 나눔을 먼저 생각하고 자유롭게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워나가기를 소망했다. 또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이 약한 동물들,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생각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찬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려볼 수 있었다. G

글·박지숙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데, ‘발달장애’는 전혀 장애가 아닙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커피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킨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윤영돈(자폐성장애 1급)씨–
커피를 맛있게 하는 데, 장애가 끼어들 틈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별 없는 눈으로 보면 놀라운 잠재력이 보이는 발달장애인!
일하는 기쁨을 찾아주면 얼마든지 제 몫을 다 하는 뛰어난 일꾼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 **일하는 속도는 느려도, 일하는 과정은 꼼꼼해요!**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로 인해 인지력 ·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흔히들 발달장애인은 아무 일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규칙적인 일을 좋아하고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변화도 금방 파악하여, 집중력과 정확성이 필요한 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보다 잘 하는 발달장애인, 세상을 함께 걸어갈 좋은 이웃입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주머니 속 '문화이용권' 신청하세요

'문화바우처' 이름 바꿔 문화소외계층에 5만원 한도 올해 65만여 매 발급

영화·전시·공연·도서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 재충전과 신규발급이 시작된다. 지난해까지는 '문화바우처'로 불렸지만 바우처라는 단어가 생소해 올해부터 '문화이용권'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존 이용자들을 위한 문화이용권 재충전은 3월 4일부터, 신규발급은 3월 18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림 | 2013년 문화카드 충전 및 발급 일정

- 문화카드 소지자가 재충전시
  3월4일(월)부터 주민센터나 ARS(1544-7500)를 이용.
  3월 11일(월)부터는 온라인(www.문화이용권.kr)도 이용 가능.
-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시
  3월 18일(월)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 연두색 카드가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이은경씨는 문화이용권을 '희망'이라고 부른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 팍팍했던 이씨의 삶은 문화생활을 하면서 윤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요즘 '행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린다. 이씨 가족은 2011년 문화이용권 회원이 됐다. 특성화고 1학년이 되는 큰딸 민정이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작은딸 선정이에게 문화이용권은 마술 같은 존재다. 좋아하는 책을 사고, 보고 싶던 영화를 보고, 사고 싶었던 음악CD를 살 수 있어서다.

이씨에게는 문화이용권이 고마운 친구다. 이씨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은 물론 네 번의 항암치료와 33회의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힘들었던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위로가 된 것은 바로 문화이용권이었다. 문화이용권 덕분에 이씨 가족의 삶은 풍요롭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없는 살림에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다. 무엇보다 문화생활을 하면서 두 딸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고, 그만큼 대화의 시간도 늘어났다. 사춘기를 겪는 두 딸이 이전에는 멀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친구처럼 다정다감한 사이가 됐다.

문화혜택 받은 두 딸과 대화의 시간 늘어

이씨는 "문화이용권이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다. 문화생활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었다. 먼 나라 남의 이야기 같았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미안하다는 마음까지 든다"고 말했다.

2013년 3월 4일부터 문화이용권 신청이 시작됐다. 이씨와 같이 기존에 문화이용권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재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신규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3월 18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이용권 지원 서비스

구 분	문화카드	세부지원
내 용	•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도서 등 구입이 가능한 전용 카드 발급**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제공**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린문화시설이 부족해 자발적 문화카드 이용이 어려운 대상** – 경제적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사회적 소외계층(고령층, 장애인 등), 지리적 소외계층(농산어촌, 도서 등), 기타 소외계층(사회보호시설 등)
신청(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후기명식 카드로 즉시 발급 • **문화이용권 홈페이지 이용** –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카드 수령(1~2주) 후 등록 필요	• **전국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에서 지역 특성 및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 지자체 및 지역 주관처 협력하여 기획 사업 홍 보 및 대상자 발굴 – 프로그램 신청 접수 및 기획사업 추진
지원금액	• **카드 1매당 5만원 한도**(가구당 1매, 청소년 개인당 1매,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당 1매)	• **1회 1인당 5만원 상당 프로그램**
사용범위	•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 – 뮤지컬, 연극, 콘서트, 영화, 도서, 전시, 온라인, 콘텐츠(음악, 다운로드) 등 – 전국 문화예술 관련 매장 및 주요 온라인 문화예술 사이트	• **모셔 오는 서비스 :** 대상자를 공연장으로 초청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 • **재가방문 서비스 :** 중증장애인·재가노인 등 외부 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위한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 제공 • **문화카드플러스 서비스 :** 문화카드 소지자 중 카드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관람 편의 제공(버스·간식·수화통역·인솔자 등) • **지역특화 프로그램 :** 지역 특성에 맞춘 문화 프로그램
사용방법	• 오프라인 : 전국 문화카드 가맹점에서 공연·영화 관람시, 도서·음반 구매시 현장 결제 • 온라인 : 문화이용권 홈페이지 내 온라인 마켓을 통한 구매(예매) 및 현장 결제	

문화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즐기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와 음반·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후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마련한다. 2013년 문화이용권 65만여 매 발급 예산은 복권기금(70퍼센트)과 지방비(30퍼센트)를 합한 493억 원 규모다. 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지난해와 같이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씩 준다. 청소년들은 개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공연단체가 기부한 무료·할인티켓 이용할 수도

문화카드로는 공연·영화·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CGV·메가박스 영화 관람권 할인, Mnet·KT뮤직 음원 다운로드 할인 등의 부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나눔티켓·당일할인티켓 제도 등을 통해서도 무료·할인 티켓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화카드 소지자는 나눔티켓을 활용해 공연장이나 공연단체가 기부한 무료 티켓이나 50~80퍼센트 할인한 티켓을 받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또 문화카드 소지자나 청소년(8~24세)들은 예술의전당 공연의 당일 잔여석을 1회에 5,000~1만원 할인받는 당일할인티켓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추가되는 문화이용권 혜택은 문화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기획사업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 등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농·산·어촌 대상자, 고령층, 장애인 등 자발적으로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관람장까지 모셔오는 서비스, 방문 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등의 특별 서비스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은영 사무관은 "향후 문화부의 3개 이용권(문화이용권·여행이용권·스포츠관람이용권)을 통합한 단일 카드를 발급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

글·김지연 기자

일러스트·강일구

젊은 영농인에 '기회의 땅' 우선 지원

희망 농지 저렴하게 임대하고 연리 2퍼센트로 구입자금 대출

20, 30대 젊은 영농인에게 농지 임차 혹은 구입을 지원하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규모가 올해 더욱 확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펼치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에서 젊은 영농인 2,164명이 농지를 지원받았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기존 농가의 소득증대를 돕고 젊은 귀농인·창업농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며 농촌고령화도 완화하는 '착한 사업'이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정용현(26)씨는 지난해 한국농수산대학 졸업과 동시에 농업에 뛰어들었다. 원래 공학도였던 그는 충남권 4년제 대학을 2년 만에 중퇴하고 2009년 3년제인 한국농수산대학에 다시 입학했다.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농사를 도왔던 정씨에게 농사는 '가난의 상징' 같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다 결국 농업을 선택했다. 그런데 곧 농지 확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 사진이 없어요. 저와 누나, 여동생은 첫돌 사진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농지 구입은커녕 어디 가서 돈 한푼 빌릴 엄두도 못 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졸업을 앞두고 농지 마련을 고민하던 그에게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안내문이 날아왔다. 농어민후계자로 지역 농어촌공사에 등록했던 덕분이었다.

정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 영농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 2011년 말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산·태안지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확보했던 토지를 알선했다. 정씨는 집에서 가까운 충남 서산시 운산면 일대 8,200평방미터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리 2퍼센트에 대출받아 구입했다. 정씨는 대학에서 배운 영농기술을 활용해 이것저것 재배해보고 4~5년 뒤부터 제대로 농사를 지어볼 생각이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한 농업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영농인으로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에 일조한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영농계획과 정착 가능성 평가해 지원 여부 결정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촌 정착을 희망하나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지 임차를 알선하고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20~39세의 창업농·후계농·귀농인 등 영농의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젊은 세대의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3,000평방미터 초과 농지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지원 신청은 영농희망지역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영농계획과 신청자의 영농 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 및 인접 시·군의 희망농지를 5년 동안 최대 5만 평방미터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다. 현재 농지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논의 경우 1마지기(2,661평방미터)에 쌀 1가마니(80킬로그램) 가격인 18만원선이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10~20퍼센트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농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정씨의 경우처럼 장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논은 3.3평방미터(1평)에 3만 원, 밭은 3만5,000원을 연리 2퍼센트로 빌려 10~3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자로 선정돼 2만2,000평방미터의 농지를 지원받은 전업농 이재갑(38·충주시 노은면)씨는 "폐쇄적인 농촌사회에서 아무런 인맥 없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저렴한 임대료도 좋지만 젊은 영농인이 농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지원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쌀시장 개방 확대, 국내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농지시장의 불안,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 탈농과 유휴농지 증가, 농가부채에 따른 농업경영 위기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농지은행'을 도입했다.

농지은행은 영농규모화, 농지매입·비축, 농지 임대수탁 같은 사업을 통해 사망·고령화·양도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수탁한 뒤 이를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해 영농규모화를 꾀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이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영농경험이 최소한 3년 이상 돼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 젊은 영농인(만 20~39세)은 후순위로 밀렸다.

2011년만 해도 농지은행 지원 대상자(만 20~60세) 중 20~30대 영농인의 비율은 10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처음 실시한 2012년 젊은 영농인이 농지은행에서 지원받은 농지 면적은 전체 지원 규모의 15퍼센트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젊은 영농인의 비율을 17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지은행 지원 대상 64세로 높여 고령농도 배려

이와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은행 지원 대상 연령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높였다. 젊은 세대에게 농지를 우선 배정하는 한편 농촌을 지켜온 고령농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최병국 과장은 "젊은 신규 영농인의 농촌 정착과 소득증대를 돕는 한편 고령농도 배려해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농촌에서 신·구 세대가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는 오는 11월 선정한다.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와 93개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인터넷 홈페이지 www.fbo.or.kr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Hib 백신도 무료로 접종하세요

정부 지원 백신 11개로 늘어… 관할 보건소·자치단체 지정의료기관에서 지원

앞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은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월 25일 "3월부터 Hib 백신에 대해서도 백신비와 접종시행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다.

Hib는 어린아이들에게 발병할 경우 뇌수막염·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는 감염병이다. 영·유아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어서 예방접종은 필수다. 정부가 지원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동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더 편리하게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95퍼센트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번 Hib 백신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지원 백신은 모두 11가지로 늘었다. 지금까지는 B형간염·수두·일본뇌염 등 10종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서울 동작보건소에서 엄마 손에 이끌려온 한 어린이가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중앙포토

20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내용
사업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 내용	국가 필수예방접종(11종 백신)의 지정의료기관 접종 비용
지원 백신	BCG(결핵)·B형간염·DTaP(디프테리아·파상풍·무세포성 백일해)·IPV(불활성 폴리오 바이러스)·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두·일본뇌염·Td(파상풍·디프테리아)·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노약자 보호하는 공공사업

Hib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려면 관할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예방접종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보건소가 아닌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2월 26일 현재 예방접종비용 추가지원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12곳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총 244곳 중 200곳이다. 이 외의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1회 접종에 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젊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면역력을 높여 어린이·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중요한 전략"이라며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문화가 정착하도록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1월17~24일 1세 이하 영아 보호자 1,7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0.1퍼센트(1,531명)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G

글·박기태 기자

학교폭력 '설문'에 응답해주세요

전국 1만1,900개교 초·중·고생 525만 명 대상… 응답자 익명성 보장해 참여율 높여

201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2012년도 1, 2차 실태조사에 이은 세번째 조사다. 이번 실태조사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교 3학년생까지 약 525만 명이 그 대상이다. 전국 1만1,900개 각급 학교 초등학생 147만 명, 중학생 181만 명, 고등학생 193만 명, 특수학교 학생 4만 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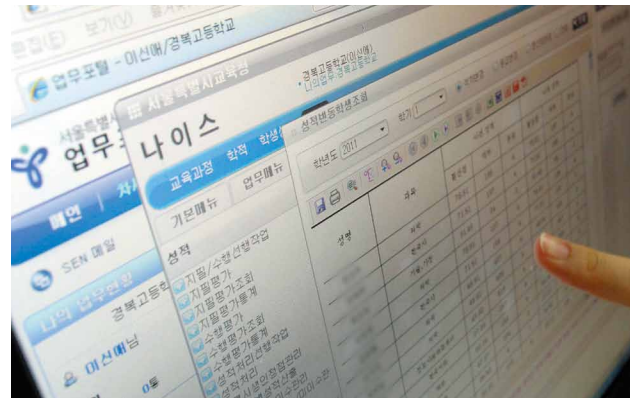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에 접속해 15개 안팎의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문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사례와 예방교육 효과 등의 문항에 답하도록 구성됐다. 나이스 외에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실태조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인증번호를 발급받은 후 로그인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설명하는 사전교육 플래시 동영상을 시청한 뒤 설문에 참여하고, 학교폭력 예방법과 신고안내를 받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설문 응답 전후 교육용 콘텐츠를 플래시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설문에 참여하기 전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다.

드라마 〈학교 2013〉 출연진이 설문 문항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이소영 서기관은 "이번 조사는 '사소한 것도 폭력이다'를 모토로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교육용 콘텐츠를 통해 어떤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되는지를 인지할 수 있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학교폭력 사건을 모은 사례집을 바탕으로 콘텐츠 내용을 구성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등 사례 위주의 콘텐츠로 폭력 유무를 가리는 해설을 곁들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실시했던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제공한 교육 콘텐츠가 단순히 학교폭력 여부를 구분하는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연합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www.neis.go.kr) 입력화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폭력사례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지도하기 위한 취지다.

홍보 동영상에는 KBS 드라마 〈학교 2013〉 출연진이 등장해 설문 문항 해설을 맡는다. 이 서기관은 "콘텐츠는 초등용, 중·고등용으로 구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드라마 〈학교 2013〉에 출연한 배우들이 사례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문항을 읽어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교별 조사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알리미'에 2차 조사 결과와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2013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9~10월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서기관은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지만, 발표 전에도 설문 참여 학교별로 1차 조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측이 후속조치를 마련하거나 학교폭력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G

글·김슬기 기자

시·도교육청 hes.(시·도교육청 도메인).go.kr/std.html
학교알리미 schoolinfo.go.kr

개인정보·보안카드번호 요구하면 의심!

악성코드 심어 피싱 사이트로 유도 수법… 올 177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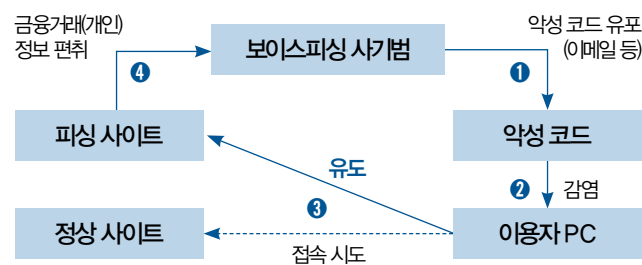
금융사기가 나날이 진화해 보이스피싱에 이어 '파밍'이 등장했다.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악용한 금융사기라면, 파밍은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신종 온라인 금융사기 수법이다. 최근 파밍에 걸려든 금융피해가 속출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경찰청이 합동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부 장모씨는 1월 16일 오후 10시경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로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S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런데 장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가장한 피싱 사이트였다. 사이트에 접속하자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팝업 창이 떴고, 장씨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찜찜했다. 그리고 나흘 후, 사기범은 장씨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 장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장씨의 S은행 계좌에서 2,000만원을 빼내갔다.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이모씨는 2월 19일 오후 8시경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즐겨찾기를 이용해 N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 이씨가 접속한 사이트 역시 N은행의 정상 사이트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였다. 피싱 사이트에서 팝업 창이 나타났고, 이씨는 팝업 창에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이씨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 2월 20일 새벽 1시경 이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이씨의 N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을 빼돌렸다.

보안승급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 요구 사이트 급증

최근 이와 같은 '파밍'에 의한 신종 금융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3월 4일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파밍'이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돼 사기범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밍 사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323건이 발생해 피해액만 20억6,000만원이었다. 특히 올 들어 177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파밍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편취 수법

파밍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은 웬만큼 컴퓨터 실력이 있다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먼저 사기범이 이메일 등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해 이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킨다.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가 감염된 줄 모르고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악성 코드가 이용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한다. 이용자가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사기범이 이를 수집해 이용자 계좌의 돈을 빼내간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합동 주의경보를 내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피싱 사이트(파밍에 이용된 피싱 사이트 포함)가 지난해 들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피싱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번에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해 12월 도입된 '합동경보제'에 따른 것이다. 이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경찰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홍보에 나서는 제도다.

금융사기가 나날이 진화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등이 부산 서면 지하상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밝힌 파밍 피해 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공공기관(검찰·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 달라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 때는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해야

둘째, 보안카드번호 요구에 유의해야 한다.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또 타인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제한하고, '나만의 은행 주소(농협)' '개인화 이미지(국민)' '그래픽 인증(우리)'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다운로드(클릭)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 코드가 포함돼 있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안승급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절 응하지 말고 금융회사 등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라도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파밍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G

글·공감코리아

강·산·농촌 품어 선택 폭 넓은 주거환경

자녀교육부터 노후생활까지 삶 풍요롭게 할 사회문화적 여건 두루 갖춰

세종은 가능성이 풍부한 도시다. 서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행정중심지로서 주민이 다양한 형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개개인이 저마다 그려보는 삶의 청사진을 실현하기에 더없이 좋은 지역이다.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세종의 지리적·사회문화적 여건을 살펴본다.

며칠 전,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다. 시골집 마당 한편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깎았다. 전기 이발기로 한두 달에 한 번씩 혼자 머리를 손질한 지 5년쯤 됐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 등으로 쏟아지는 햇볕이 더없이 따사로웠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들었다.

문득 40여 년 전 생각이 났다. 농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다. 이맘때면 볏짚을 수북하게 쌓아놓은 볏가리에 등을 대고 앉아 햇볕을 쬐고는 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 시간들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시골에서 3월의 햇볕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몽환적이다.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아련한 행복을 안겨준다.

대한민국의 최신 도시로 꼽히는 세종과 인근 공주의 시골집을 매일 오가는 생활을 한 지 3개월이 넘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직전인 이 시기의 농촌은 연중 풍광이 가장 황량하다. 반면 굴삭기와 대형 트럭이 분주히 오가는 세종은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공사장과 같았다.

하지만 지난 3개월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눈과 마음이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다. 아침 저녁으로는 최첨단 도시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낮 동안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서서히 변하는 계절을 몸으로 느꼈다. 매일 다채로운 반찬이 올라오는 밥상을 맞이하는 것 같은 일상이었다.

남북으로 긴 세종시,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세종시 면적은 서울의 약 3분의 2인 465평방킬로미터다. 그러나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길쭉한 세종시는 방사상으로 발달한 서울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정부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할 때 동·서로 확장될 여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세종시는 동쪽으로 청주(청원군), 서쪽으로 공주와 시계(市界)를 맞대고 있다. 서쪽의 장군면 일대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행정중심구역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최근 전원주택과 원룸 빌딩이 대거 들어서고 있다. 세종시의 동·서 확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동부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2020년 전후에 개발이 집중돼 있다. 세종 4생활권과 5생활권, 부강면 일대는 장군면과 같은 서부지역과 비교할 때 장차 도시적 환경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 남동쪽으로는 대전에 조성하는 과학벨트와 맞닿아 있고, 대전과 청주 양쪽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경부축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부강면 일대는 번잡한 도시로부터 한참 떨어진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가까운 미래에는 자동차로 10분이면 정부 세종청사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골집 10킬로미터 거리에 정부청사 있어 든든

세종과 공주를 오가는 생활에는 과거 서울 한복판의 빌딩에서 일할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다. 특히 정부 세종청사가 가동되면서 공주의 시골집 텃밭에서 혼자 일해도 외롭다거나 소외된 듯한 느낌이 없다. 일터만 다를 뿐, 많은 이가 같은 시간 직선거리로 10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정부청사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든든한 기분까지 든다.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지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안겨주는 일상의 안정감은 실제로 체험해보면 상당하다.

세종은 서울에 비해 도시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 하지만 서울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보스턴 등지에서 10년 남짓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서울은 수직 일변도의 도시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도시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대도시들은 이른바 다운타운에만 고층빌딩이 밀집해 있다. 흔히 '서버브(Suburb)'라고 불리는 교외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수평 혹은 평면적으로 일과 생활 터전이 닦여 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장군면 소재지에 원룸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주거공간의 다양성은 사회가 지닌 삶의 질과 직결된다. 주거 형태 하나만 따져봐도 세종에서는 고층의 아파트 생활과 농가주택 생활이 모두 가능하다. 그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원생활의 여지도 풍부하다. 자녀교육이라든지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과 철학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세종은 이런 점에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여느 도시보다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읍·면지역은 대도시에 없는 멋과 맛 갖춰

향후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이른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의 도시가 파산하는 예도 심심찮게 목도하는 세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장차 다가올 우리 사회의 가장 특징적 면모는 인구노령화다. 수직 일변도의 도시는 성장을 이끄는 20~50대 연령층에 적합한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평균수명 80세를 훌쩍 넘긴 우리 사회는 이미 수직적 삶과 주거 양태만 고집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통사람들의 경우 대체로 60세를 전후해 사고구조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청년시절이나 중·장년시절과 달리 서열·직위·계급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때가 되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 치어 때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초·중·고교 때와 비슷하게 수평적 의식구조로 서서히 환원된다. 흥미롭게도 물리적 주거환경과 개개인의 의식구조, 문화는 서로 비슷하게 발을 맞춰가는 특성이 있다. 세종의 제일가는 매력은 산과 들, 강이 지척이라는 점이다. 세종은 녹지가 풍부하고, 제법 큰 강인 금강을 끼고 있다. 주변에 들녘도 꽤 있고, 강원도와 비견할 만한 산촌 분위기가 나는 시골마을도 적지 않다.

조치원처럼 근·현대사의 교차점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읍 소재지도 포함한다. 정부 세종청사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면소재지 역시 한둘이 아니다. 읍·면소재지는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저마다의 멋과 맛을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세종은 삶의 양식을 다양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지리적·자연적 조건을 두루 갖췄다.

개개인이 저마다 그려보는 삶의 청사진을 실현하기에 세종만큼 훌륭한 여건을 갖춘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찾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G

글과 사진·김창엽(자유기고가)

곶자왈은 용암이 굳어지고 쪼개지며 생긴 돌 위에 형성됐다.

제주 동백동산

오름 사이로 물결치는 숲, 곶자왈

곶자왈에 가본 적이 없다면 아직은 진짜 제주를 보지 못한 것이다. 허나 진짜 제주를 탐하려 한다면 곶자왈은 자신을 내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속살'을 보는 여행을 욕망한다. 혹독했던 제주의 역사가 눈물겨운 뿌리로 남은 곶자왈. 그곳은 모든 것이 기막히고 막막한 속살이다. 그러나 소란한 구경 대신 고요히, 숲이 견뎌왔을 시간으로 스며들자. 걷다 보면 속살을 욕망했던 어제가 한없이 미안해진다.

지난 몇 해 동안 일 때문에 제주 곶자왈과 서울을 오가며 "곶자왈이 어디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최근 곶자왈이 제법 알려지면서 그 정체가 꽤 드러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은 묻는다.

곶자왈은 지명이 아니다. 특정 관광지의 이름도 아니다. 생소한 음절의 연속에 발음조차 뭔가 부담스럽다 보니 간혹 안면도의 꽃지해수욕장과 혼돈해 '꽂지왈'이라고 잘못 부르는 이도 있다.

곶자왈은 제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숲을 일컫는 말로, 제주어의 '곶'과 '자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이루어진 합성어다. 제주어사전에 따르면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헝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뜻한다. 그런데 이 정의만 놓고 보면 곶자왈은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형태인 듯 여겨진다. 그러나 곶자왈 정의의 바탕에는 용암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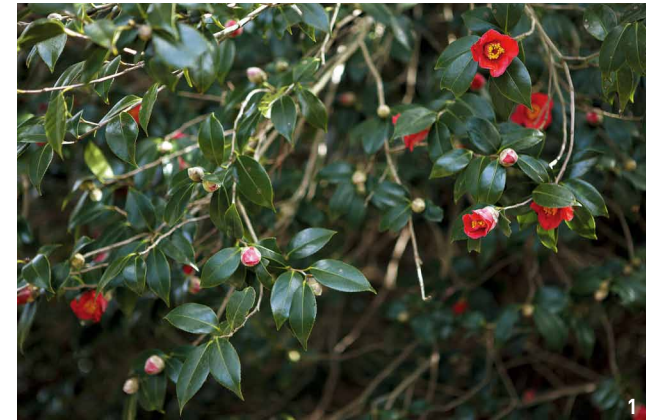
곶자왈은 용암이 빚은 숲이다

제주사람들은 한라산과 해안의 중간지역인 중산간지대의 숲을 대개 '곶'이나 '자왈' 또는 '곶자왈'로 불러왔다. 이 중산간지대의 숲은 화산이 폭발하며 오름이 생기는 과정에서 분출한 용암이 광범위하게 뒤덮은 곳에 수십만 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루어진 숲이다. 결국 곶자왈은 오름 사이로 흘러내린 용암이 굳고 쪼개지며 생긴 크고 작은 돌 위의 숲인 것이다.

그러니 곶자왈이라는 단어는 식물이 자라는 모양인 식생뿐만 아니라 땅이 생긴 모양인 지형, 땅을 이루는 내용인 지질, 인간과 관계를 담은 인문 등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제주에만 적용되는 특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에는 이런 곶자왈이 넓게 펼쳐져 곶자왈지대를 이루는 곳이 크게 네 군데 있다. 동백동산은 그 중 동부지역의 곶자왈지대에 속한다.

거문오름 발원 선흘곶자왈의 중심, 동백동산

동백동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그 시작점을 같이하는 동부지역 선흘곶자왈의 일부다.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하며 제주도의 평지에 형성된 상록활엽수림지역 중 그 면적이 가장 넓다.

동백동산에는 제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주고사리삼 같은 멸종위기식물을 비롯해 순채·물부추·어리연꽃 같은 다양한 식물이 여러 곳에 형성된 독특한 습지에 서식한다.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국제적으로는 람사르협약을 통해 보전해야 할 습지로 등록됐다.

1 동백동산 숲 가장자리에 동백꽃이 피었다.
2 동백동산 입구 옆의 제주 4·3사건 유적 '대섭이굴'.

그런데 의아한 것은 동백동산을 지나는 동안 습지와 이곳에 서식하는 다른 동식물에 관한 안내표지판은 많이 볼 수 있지만 동백나무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숲을 유심히 살펴보아도 동백나무가 주를 이루지 않는다. 이른 봄, 동백동산이라는 이름만 알고 붉은 물결을 이룬 동백꽃을 기대하며 이곳을 찾았다면 십중팔구 실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동백동산은 왜 이름이 동백동산일까? 그 답은 숲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동백나무가 귀한 자원이던 옛날 동백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벌목되는 와중에도 보호대상이 되어 숲을 이루었다. 하지만 벌목이 금지되면서 구실잣밤나무나 종가시나무처럼 키가 더 크게 자라는 나무들에 밀려나 이제는 숲 가장자리라고 할 수 있는 동쪽부분에만 주로 남게 됐다.

곶자왈에는 다섯 번째 계절이 있다

동백동산을 걷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서쪽 입구와 남쪽 입구 중 택할 수 있다. 왕복 탐방로가 아니므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곶자왈의 나무들은 바위와 돌 틈에서 식생한다.

숲길에서 만난 사람 조천읍 선흘리 주민 고평우 씨

"마을의 보물, 저는 매일 산책하러 옵니다"

"예전에는 동백동산에 '장정 일곱 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정도로 굵고, 세 칸 집 한 채를 지을 만큼 아름드리 나무'들도 있었답니다. 1960, 70년대를 지나면서 땔감으로 쓰거나 낫자루 같은 농기구나 숯을 만들려고 벌목을 많이 하다 보니 남아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동백나무만은 베어내지 못하게 보호했어요. 열매기름을 짜고 약용으로도 쓰고 마을의 귀한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나무보다 동백나무가 훨씬 많았는데, 벌목이 금지된 뒤로는 자라는 속도가 느린 동백나무가 다른 나무에 뒤처지기 시작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동백동산은 이제 더 이상 '동백숲'이 아닙니다. 하지만 온갖 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룬 동백동산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이 출구가 되고, 저쪽에서 들어오면 이쪽이 출구가 된다. 주차하고 가기에는 서쪽 입구가 편하지만 숲길의 흐름을 느끼며 걷기에는 반못 부근의 남쪽 입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환한 햇살을 받으며 채 5분도 걷지 못해 깊은 산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울울창창한 숲길로 들어서게 된다. 구실잣밤나무·종가시나무·조록나무·황칠나무·생달나무 같은 키 큰 나무가 하늘을 덮으니 길 위에는 조각 빛만 하늘이 열린 꼭 그만큼씩만 바람에 흔들린다. 길 옆의 무수한 양치식물도 덩달아 조각 빛에 반짝이며 계절을 잊게 만든다. 거목과 현무암에 악착같이 붙어 치열한 삶을 이어가는 콩짜개와 송악·마삭줄 같은 덩굴들이 곶자왈이라는 낯선 단어의 뜻을 비로소 몸으로 느끼게 해준다.

돌 투성이 위에 떨어진 씨앗은 한 줌의 흙을 찾아 바위를 움켜쥔 채 땅 속 깊숙이 뿌리를 뻗으며 제 몸을 지탱한다. 돌 틈에서 나오는 습한 기운은 이름도 대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양치식물을 키운다. 얼기설기 쌓인 곶자왈의 돌과 돌 사이에서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나온다. 그래서 추운 곳과 따뜻한 곳에서 각각 서식하는 서로 다른 양치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 일부는 한겨울에도 삶을 이어간다. 이를 두고 곶자왈에는 다섯 번째 계절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숲길의 절반쯤 걸으면 좁은 공터에 다다른다. 이렇다 할 오르막도 내리막도 한 번 없이 줄곧 평지로만 이어지던 숲길이다. 공터 바로 전 오른쪽으로 갑자기 길을 벗어나 열 걸음쯤 올라가는 돌계단이 나온다. 무시하고 지나쳐도 그만이겠지만 한번 올라가보기를 권한다.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용암 덩어리 위에 올라서서 그 틈에서 자라는 다양한 나무와 풀을 볼 수 있다. 지형지물을 생활에 활용한 옛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평지로만 이어진 난대 상록활엽수림

돌계단은 커다란 용암 덩어리가 갈라진 자리에 옛사람들이 놓은 것이다. 현지 주민인 고평우 씨에 따르면 지금은 나무가 무성해 시야를 가리지만 예전에는 저 멀리 바다까지 내다보일 만큼 전망이 좋았다고 한다. 테우리(소나 말을 모는 목동)들이 목장의 마소가 잘 있는지 살펴보던 전망대 역할을 했으며, 이곳을 상돌언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상돌언덕을 지나 숲길을 계속 걷다 보면 일순간 하늘이 뻥 뚫리며 동백동산에서 가장 큰 습지 먼물깍이 나타난다. 깊고 어두운 숲길을 빠져 나오자마자 마주치는 아름다운 연못이 하늘과 구름을 담고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은 숲 터널의 대미를 장식하며 쉬어갈 자리를 내준다. 연못 가장자리 볕 좋은 곳에 군데군데 놓인 의자와 쉼터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걸으면, 여기서부터는 한층 넓고 밝은 길이 계속돼 출구까지 햇살을 즐기며 낙낙히 걸을 수 있다.

상록활엽수로 가득한 동백동산을 찾기 좋은 계절은 겨울과 봄이다. 특히 상록활엽수가 제 역할을 다한 잎을 떨어뜨리는 4월 봄에는 한여름의 초록을 이고 푹신한 가을 낙엽길을 걷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몽환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맨 처음 곶자왈에 들어서면 한 뿌리에서 자란 대여섯에서 많게는 열 개 이상의 줄기가 뒤틀리고 꺾이고 서로 지탱하고 피하기를 반복하며 기기묘묘하게 서 있는 자세에 놀라게 된다. 베어진 나무는 생존의 위협을 느껴 수많은 맹아에서 싹을 틔우고 새 가지를 만들어낸다.

동백동산습지보호지역의 대표적 습지 '먼물깍'은 람사르협약에 의해 보전지역으로 등록됐다.

동백동산의 나무들 역시 일제강점기와 4·3사건을 지나며 불에 타거나 베어져 크게 훼손됐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숯을 만드는 일이 흔해 대부분의 큰 나무는 밑동이 잘려나갔고, 나무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새 가지를 내어 세월이 지난 지금 독특한 숲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끈질기게 살아남은 숲, 그리고 삶과 죽음

곶자왈은 주민들에게 생계수단이자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생존의 수단이기도 했다. 4·3사건 당시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피난해야 했던 주민들은 기르던 가축과 가을걷이한 곡식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어 임시 피난처를 찾았다. 며칠만 숨어 있으면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찾아간 곳이 바로 숲이 우거지고 곳곳에 천연동굴이 있는 선흘곶자왈이었다. 동백동산 남쪽의 대섭이굴·목시물굴·도틀굴(반못굴) 역시 주민들이 숨어 있던 곳으로, 토벌대에 발각돼 수십 명이 처참하게 학살당한 아픔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만일 동백동산 남쪽 입구를 출발 지점으로 정했다면 입구 좌우에 있는 동굴을 먼저 찾아보기를 권한다. 베어내면 다시 자라고 흙이 없으면 바위를 움켜쥐고 뿌리를 뻗는 곶자왈의 나무처럼, 혹독한 시절 씨앗 뿌려진 그 자리에서 기막히고 막막하지만 치열했던 제주인의 삶과 죽음의 흔적이 부끄러운 역사의 속살을 고개 숙여 바라보게 한다. 그 다음 만나게 되는 곶자왈의 나무들은 이전과는 좀 다를 것이다. 움켜쥐었던 것은 놓게 하고, 놓았던 것은 단단히 움켜쥐게 할 터이니. G

글과 사진·이꽃리 (숲 칼럼니스트)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제주국제공항에서 약 50분 소요. 중산간도로(1136번 도로) 조천 방향으로 진입해 선흘1리사무소까지 진행한 다음 부근 동백상회 옆으로 난 마을길을 따라 선흘초등학교로 가면 학교 옆 동백동산습지보호지역 표지판 있는 곳이 서쪽 입구다. 주차 가능. 또 선흘1리에서 송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반못이 나오고, 100여 미터 더 가면 남쪽 입구가 있다. 별도 주차장 없음.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함덕까지 시외버스 이용. 함덕에서 함덕-선흘 순환버스를 타고 선흘1리사무소에서 하차.

도구리전통음식식당 선흘체육관 앞 도구리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도구리 슬로푸드체험관 내 한식당. 전통 방식 메주로 만든 제주된장요리 등을 맛볼 수 있다. **문의** 064-782-8783

카페세바 선흘문화예술공간이라는 설명을 달고 있는 돌담집 카페. 커피와 브라우니 등을 즐길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매달 한두 차례 진행하는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주차 가능. **문의** 070-4213-1268

동백상회 선흘리 버스정류장 옆에 있다.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영업 중이며, 주인장은 마을 일에 훤하다. 동백동산 서쪽 입구를 출발 지점으로 정했다면 숲길 걷기에 필요한 간식 등을 구입하기에 좋다. **문의** 064-784-8497

바우네민박 구좌읍 한동리에 있으며 동백동산과 20분 거리다. 마당이 있는 전통가옥의 황토방이 푸근하다. 구석구석 오름을 섭렵한 주인장에게 실속 있는 여행 팁을 얻을 수 있고, 안방에 앉아 푸짐한 친환경 아침밥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11-9578-7859

오션그랜드호텔제주 함덕해수욕장 내에 위치. 동백동산과 15분 거리다. 시설 대비 저렴한 숙박비에 실용적인 뷔페식 아침식사까지 제공한다. 바다 전망 객실에서는 침대에 누워 빛깔 곱기로 유명한 함덕 바다에 취할 수 있다. **문의** 064-783-0007

걷는 거리 편도 약 2킬로미터 **걷는 시간** 어른 걸음으로 편도 약 1시간
문의 선흘1리사무소 064-783-8885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나른한 봄, 기운 돋우는 부추요리

부추는 이율배반의 소채(蔬菜)다. 예부터 청빈의 상징이면서 강정식품으로 여겨졌다. 청백하다고 해서 기력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전혀 다른 성질이 한 채소에 담긴 것이 아무래도 어색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 남제(南齊)의 상서가부랑(尙書駕部郎) 유고지(庾杲之)는 매우 청빈해 반찬으로 늘 삼구(三韭)라고 일컬어지는 부추김치·삶은 부추·생 부추 세 가지만 먹은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읊은 시 〈정월 초하룻날 감회를 적다(元日書懷)〉에서

"말 달리듯 빨리도 세월은 흐르는데(天末流光疾若馳)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봄은 오네(年年春色到如期)
아침상에 부추나물도 오르지 않았구나(朝盤未薄三三韭)
나이는 이제 벌써 사십구 세가 되었는데(暮齒今齊七七蓍)
지보의 숨은 걱정은 누구와 함께 이야기할까(支父幽憂誰共語)"

라고 노래했다.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신하들에게 "부추나물에 소금국이 비록 박하기는 해도 내주(內廚)의 진수성찬보다 맛은 더 좋으니 경들도 각기 한번 배불리 먹어 보라"고 권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소박한 음식으로 알려진 부추가 원기회복과 정력증강에 효능이 있다는 점이다.

예부터 민간에서는 부추가 양기를 북돋워 준다고 해서 기양초(起陽草) 또는 장양초(壯陽草)라 했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욕만 커지게 만든다고 게으름뱅이풀이라고도 불렀다. 장복하면 오줌 줄기가 벽을 허문다 하여 파벽초(破壁草)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부부 사이 좋으면 집 허물고 부추 심는다'고 해서 붙은 파옥초(破屋草)라는 명칭은 그 효력을 직설적으로 말해준다. 경상도지방에서는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는데 정력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채소[精久持]라는 의미다.

〈본초강목〉에도 부추는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생식기능을 좋게 하는 "온신고정(溫腎固精)의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부추는 마늘·파·달래 등과 함께 불가에서 금기시하는 오신채(五辛菜)에 포함된다. 음심을 동하게 하고 화를 잘 내게 한다는

이유다. 청빈한 학자들이 부추를 즐겨먹은 것은 성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고려 후기의 문신 이색(李穡)은 병석에서

"부추나물은 새파랗고 떡 빛은 노란데(韭菜青青餠面黃)
조석으로 씹어 먹으니 왜 이리 맛은 좋은지(朝昏細嚼味何長)
병중에 입은 후의는 잊을 수가 없구나(病中厚意難忘却)
하물며 가을바람에 향기로운 햅쌀까지 얻었으니(況是秋風玉粒香)"

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부추는 재생력이 강해 한 해에도 여러 번 채취가 가능하다. 이른 봄에 나는 부추는 부드러운 데다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아 제일로 친다. 옛말에 '봄 부추는 인삼·녹용과도 바꾸지 않는다' '봄 부추 한 단은 피 한 방울보다 낫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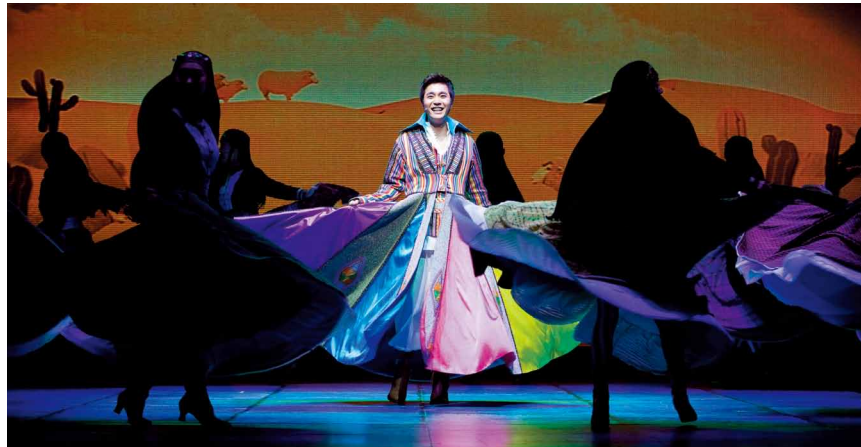
중국의 역사서 〈남사(南史)〉의 주랑전(周郞傳)에는 문덕태자(文德太子)가 일찍이 주옹에게 "채식 중에서 어떤 나물의 맛이 가장 좋더냐"고 묻자, 주옹이 대답하기를 "초봄의 이른 부추나물과 늦가을의 늦배추였습니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 후기의 학자 유장원(柳長源)이 저술한 예서 〈상변통고(常變通攷)〉에는 '봄의 시제에 서인은 부추를 올린다'는 대목이 있다. 부추로는 비빔밥과 전을 해먹으면 제격인데, 서울 중심가에서도 아예 '부추'를 내건 집을 찾아가면 이 둘을 모두 맛볼 수 있다.

글·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교수·음식문화평론가)

깨닫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글과 그림 · 최영순

하늘엔 별이 있어 아름답고 땅엔 꽃이 피어 아름답지만
사람에겐 사랑이 있어 아름답다. -괴테

주인공 요셉(조성모 분)이 꿈을 이뤄주는 극적 장치인 '드림코트'를 입고 꿈에 관해 열창한다.

요셉 스토리가 안기는 힐링 효과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꿈을 가진 삶이 가장 행복하죠. 꿈은 꼭 이뤄질 거예요!"

주인공 요셉이 노래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한국에서 초연하는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요셉의 굴곡 많은 삶을 조명한다. 야곱의 12명 아들 중 막내인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와 음모에 휘말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 기막힌 해몽 실력 덕분에 출세 길에 오른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스토리가 관객을 흡입한다.

뮤지컬계의 세계적 명 콤비인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가 1968년 선보인 첫 뮤지컬이다. 무엇보다 젊은 날의 웨버와 라이스 콤비의 재기발랄함과 천재성을 만끽할 수 있어 흥미롭다. 대중적 장르의 음악도 적절하게 배치해 멜로디의 스펙트럼이 풍성하다.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를 패러디해 표현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압권이다. 엄숙한 왕을 '로큰롤의 황제'로 표현한 반전의 코믹함은 관객에게 웃음을 안겨준다. 웨버의 특기인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들도 단연 돋보인다. 테마곡 '꿈은 이루어지네'는 즉석에서 따라 부를 만큼 쉽고 감미롭다. 반면 감옥에 갇힌 요셉이 부르는 '모든 문 닫아요'는 듣는 순간 마음이 애절해지는 노래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하는 집단 군무 장면은 안무가 서병구의 관록과 특기가 100% 발휘됐다.

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초연인 만큼 향후 흥행을 염두에 두고 대중적 스타들을 캐스팅했다. 송창의·조성모·정동하·임시완 등 4명의 스타가 번갈아 요셉 역을 연기한다. 비기독교인에게는 낯설 수 있는 줄거리는 해설자가 등장해 전후 사정을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해설자로 트리플 캐스팅 된 김선경·최정원·리사 등에 따라 공연 날짜를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 G

글·김지연 기자

기간 4월 11일까지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070-4488-8522

연극

광해, 왕이 된 남자

1,20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연극으로 다시 관객을 찾아왔다.

주인공 광해·하선 역은 1,000대 1의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배우 배수빈과 김도현이 더블 캐스팅 됐다. 연극은 왕위를 둘러싼 권력다툼과 당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를 재해석해 속도감 있게 풀어내는 극 전개가 눈길을 끈다. 또 영화와 결말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기간 4월 21일까지
장소 동숭아트센터
문의 02-3014-2118

창극

서편제

국립창극단이 영화와 뮤지컬로 널리 사랑받은 이청준 작가의 소설 〈서편제〉를 창극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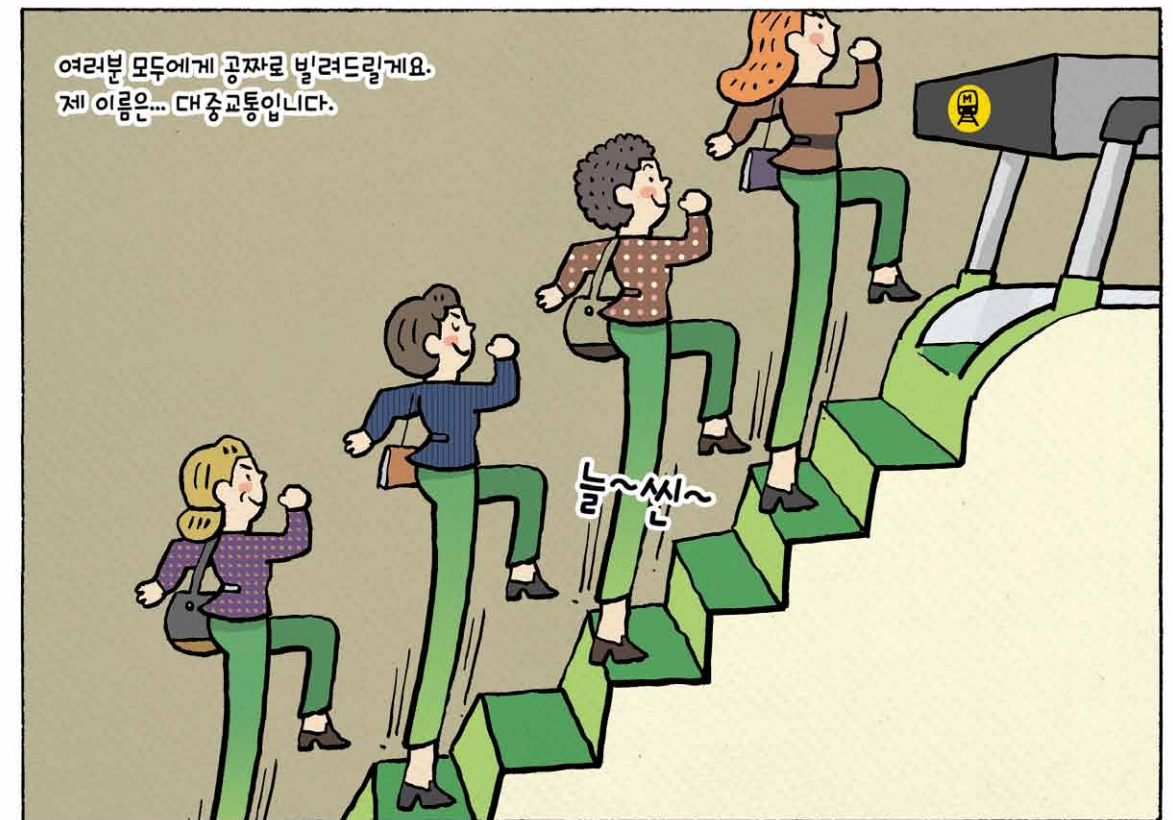
〈서편제〉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소리꾼 남매의 가슴 시린 한과 소리의 길을 그린 작품이다.

남매의 운명을 따라 지리산의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무대 위에서 한편의 대서사시로 펼쳐진다.

대본은 2002년 〈돐날〉로 대산문학상, 2007년 장막극 〈침향〉으로 차범석희곡상을 받은 극작가 김명화가 썼다. 음악은 재일교포 작곡가 양방언이 맡았다. 국악과 양악의 크로스오버 방식을 활용해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세련되게 풀어냈다.

기간 3월 27~31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114~5

공짜 헬스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대중교통 이용으로 평~생 몸짱 회원 되세요~!

생태의 엇박자, 사회적 엇박자

2월 말일은 제법 포근했다. 이제는 봄인가 싶었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모양이다. 3.1절 연휴의 꽃샘추위라니…. 고향 근처 노인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예전에는 울창한 숲이었는데, 그 산자락이 잘려 나간 자리에 호텔급 병원이 들어섰다.

만나야 할 사람은 늦는 모양이었다. 하릴없이 병원 뜰에서 서성거린다. 병원 뒤쪽 숲길로 들어가는 젊은 커플이 눈에 들어온다. 바람이 아직 쌀쌀하건만 그들은 춥지 않아 보인다. 정현종 시인의 '좋은 풍경'이 그들을 뒤따랐다.

> "늦겨울 눈 오는 날 / 날은 푸근하고 눈은 부드러워 /
> 새살인 듯 덮인 숲 속으로 / 남녀 발자국
> 한 쌍이 올라가더니 / 골짜기에 온통 입김을 풀어놓으며 /
> 밤나무에 기대어 그 짓을 하는 바람에 / 예년보다 빨리
> 온 올 봄 그 밤나무는 / 여러 날 피울 꽃을 얼떨결에 /
> 한나절에 다 피워놓고 서 있었습니다."

군말이 필요 없는 '좋은 풍경'이다. 청춘의 사랑의 열기가 밤꽃을 서둘러 피웠다는 상상이 참으로 근사하지 않은가.

요즘에는 청춘 남녀가 나무에 기대어 '그 짓'을 하지 않더라도 꽃이 일찍 핀다. 최근 30년 사이에 개나리·진달래·벚꽃 등 봄꽃의 개화일이 1주일 정도 빨라졌다고 한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꽃이 일찍 피면 일찍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여겼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생물학자 최재천 선생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 엇박자' 현상은 꽤 문제적이다.

가령 기온 상승으로 인해 예전보다 새잎이 일찍 돋으면 그걸 갉아먹으려는 애벌레도 일찍 등장한다. 그런데 그 애벌레를 먹고 자라는 철새는 예전의 시간에 맞추어 날아온다. 비슷한 시간에 돌아와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즈음이면 벌써 상당수의 애벌레는 사라지고 없다. 그러니 철새 새끼의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네덜란드 생태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알락솔딱새가 지역에 따라 최고 90퍼센트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덴마크 제비들은 음양의 엇박자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 수컷들은 점점 일찍 돌아오는데 암컷들은 여전히 느긋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일찍 날아온 수컷들의 애환이 크다는 것이다.

중앙포토

덴마크 제비는 암수의 귀환시기가 달라 번식에 애를 먹는다고 한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최근 30년 사이에 개나리·진달래·벚꽃 등 봄꽃들의 개화일이 1주일 정도 빨라졌다고 한다. 꽃이 일찍 피면 일찍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여겼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 엇박자' 현상은 꽤 문제적이다.

생태의 엇박자는 비단 애벌레나 철새, 꿀벌들만의 문제일 수는 없는 법이다. 우화적인 소설 《삽의 이력》(서유미)에서 사회적 엇박자는 매우 가혹하다. 동쪽 사무실에서의 반복되는 일상 업무에 권태를 느낀 김은 서쪽의 현장 근무로 파견된다. '미래 도시의 건설'이라는 역설적 슬로건이 붙어 있는 거기서 그의 임무는 주간에 구덩이를 파는 일이다.

그런데 이튿날 출근해보면 전날 파놓은 구덩이가 고스란히 메워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간 작업자인 윤의 임무가 구덩이를 메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은 파고, 윤은 메우는 일이 반복된다. 부조리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사무실에 연락을 취하지만 언제나 불통일 따름이다. 도대체 이를 어쩔 것인가?

아무래도 담당자는 더 늦어질 모양이다. 내가 너무 서둘러 온 것인지도 모른다. 덴마크 제비처럼 엇박자 형상이 역력하다. 그럼에도 2013각 경기의 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젊은 연인들의 걸음에서는 경쾌한 봄 리듬이 넘쳐난다. 저 숲 속 어딘가에서 곧 '좋은 풍경'이 묘출될지도 모르겠다. G 글·우찬제(서강대 교수, 문학평론가)

주머니 속에 문화가 쏙

2013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신청안내

www.문화이용권.kr

문화이용권 신청은 3월 4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www.문화이용권.kr)에서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문화카드 선착순 발급(연간 5만원)**

※ 주소지(시 · 군 · 구) 예산이 소진하면 발급 및 재충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가구당 카드 1매
(추가) 청소년(만10세~19세) 개인카드 발급
※ 만 10~19세(1994.1.1~2003.12.31 출생자 / 2013년 기준)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추가)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카드 발급(단, 미신고시설 제외)

신청방법

- **재충전 (2013년 3월 4일부터 선착순)**
  - ARS : 1544-7500 → 55번 선택
  - www.문화이용권.kr : 로그인 → 재충전 메뉴 선택
  - 가까운 주민센터 : 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 → 재충전 완료
- **신규발급 (2013년 3월 18일부터, 선착순)**
  - 온라인 신청 : www.문화이용권.kr
  - 주민센터 신청

문화카드 이용방법

- **오프라인 이용**
  - 문화카드 가맹점에서 문화예술 공연관람 및 서적, 음반 구매
  - 공연 · 영화 · 음반 · 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제가능
- **온라인 이용**
  -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연 · 영화 예매 및 도서, 음반, 온라인 콘텐츠 구매 가능
  -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이용권.kr) 내 온라인마켓 배너 이용 필수

☎ 고객관리센터 1544-3412